朝鮮日報
夕刊
七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日中間本格的交涉 數日以內에開始

成都事件에對한外省訓令着

現地三省首腦部會議

【南京六日發同盟】成都事件에關한外務省訓令은 五日深更南京에到着하엿슴으로 須磨總領事는今朝부터 總領事館幹部를 모히허右事를基礎로 細目的現地案을 作成하고잇는데 今夕此를 攜行하야飛行機로 上海에 急行하야 川越大使와 協議하고 아울러 同總領事가 打診한 國民政府態度에對하야 報告키로되엿다 이에依하야川越大使의 南京行은 二三日中에 實現될터로 드듸어日中兩國의 本格的交涉이 開始될터이다

【上海六日發同盟】成都事件에關한政府의 回訓을밧고 若杉大使館參事官 喜多陸軍武官 佐藤海軍武官 岩村第三艦隊參謀長 近藤少將等首腦部는 六日午後八時半上海大使館에 參集하야 約一時間에 亘하야 今後南京政府와의間에할 交涉方針에 對하야豫備相談을하엿다 또七日午前大使館에서 川越大使 須磨總領事가加하야 外陸海連席會議를 開催하고 成都事件을 中心으로한日中間諸懸案解決에 對하야南京政府의 交涉細目에 亘하야 具體的檢討를 遂行할터이다

日本人憤激中에 抗日圖示威流行

【上海六日發同盟】成都事件으로 日本人側은 憤激의絶頂에 達한此際 六日午後三時부터 閘北一帶에서 抗日團體의데모가 演行되여各方面에異常한 衝動을與하얏다 學生을中心으로한 數千의示威隊는『東北義勇軍援助』『成都抗戰募金』等이라고쓴 傳單을散布하면서 約二時間동안 市中을游行하고 이와때를함께하야 南部方面에서도 데모를行하얏는데 公安局員이 出動하야 리더數名을檢擧하야 겨우無事할수가잇섯다 今回의示威는 上海各會救國聯合會가 主體가되여 今後도繼續演行될模樣으로 領事館警察、工部局警察、公安局에서는 嚴重警戒를하고잇다

聖旨傳達式

今日總督府에서擧行

朝鮮稀有의 大水害罹災者를 御軫念하시어 天皇陛下께옵서 御差遣하신 牧野侍從은 臼井宮內事務官을 帶同 七日午前六時三十分 關釜聯絡船으로 釜山上陸 總督府로부터 迎接한 伊藤警務課長 金社會課長을 다리고 午後三時廿分 京城驛着『노조미』號로서 入城하야 곳 總督府에서 보낸 自動車로서 總督府에 到着하야 第一會議室에서 聖旨傳達式에 臨하엿다 式場에는 南總督 大野政務總監 各局長 官房課長 安井京畿道知事等 列席하야 侍從을 迎接하고 牧野侍從으로부터 南總督에게 對하야 優渥한 聖旨의 傳達이잇고 南總督은 感泣하야 이를拜受하고 嚴肅裡에 式을 閉하엿다

牧野侍從은 다음으로 總督室에서 總督、總監以下各局長、官房課長의 接見을밧고 大野總監으로부터 水害狀況及善後對策에 對한 聽取를마친後 富永學務局長 伊藤警務課長의 案內로 朝鮮호텔에 投宿하엿다 侍從은 一泊 八日午前八時發 江原道春川에 向할豫定이다

西班牙援助問題로 佛人民戰線分裂?

廿三萬金屬勞働者 一時間罷業

政府依然不干涉方針

【巴里六日發同盟】佛蘭西共產黨及 巴里金屬勞働組合은 五日불룸首相에게 各代表를 派遣하야 西班牙向 武器輸出禁止를 即時解禁하도록要請하는同時에 西班牙勞働黨과의 連帶關係를 示唆하기爲하야 七日午後四時부터 一時間에亘하야 一齊히 同情罷業을 斷行할旨를言明하엿다 右通告에 對하야 불룸首相은 國務會議에 鑑하야 左의要旨回答을 通達하엿다

金屬勞働組合이 同情罷業을斷行하드래도 佛國政府의 方針은微動도하지안흐며 부득이시 國防上必要한 軍需品製造가遲延되는結果로되며 또 그實施의結果萬一政府와 勞働組合사이에 不和가生한다면 刻下의 重大時局에 際하야 實로遺憾이다

右回答에 接한 金屬勞働組合에서는 곳 巴里地方金屬工二十三萬에對하야 一時間 總罷業을指令하엿다고傳한다 西班牙內亂을 契機로 佛蘭西社會黨과 共產黨과의 主張은 인제 正面衝突을 避하기難하며 佛蘭西人民戰線도 이에 分裂의 危機에 當面하게 되엿다

民有國營主義로 電力統制를强化

四相會議의主流如此

【東京電話同盟】現內閣의 重要國策인 電力統制强化方針에 關하야는 遞信省案인 民有國營案을 中心으로 國有國營、民有國營의 兩論이 錯綜하고 더욱이 國有國營案에 關하야는 電力業者를 爲始하야 財界各方面이 反對方面에서 有力하게 主張되고잇는데 政府案決定의 鍵을握한 四相會議에서는 이미 五日의第二回會議席上馬場藏相으로부터財務當局의方針으로서는 國有國營에强硬反對한다는旨를發言한바잇고 賴母木遞相도 亦電力事業本來의 性質에鑑하야 將來의 擴張計劃業務能率增進等의 立場에서 國有國營案은 차라리 不合理的인旨를 明白히 하얏슴으로 國有國營의 實現可能性은 極히 薄弱케되고 또한如斯한案에 歸着할時는 民有國營 反對運動者流의 敵本主義的策動에 陷할念慮도 多分히 存在함으로 今後四相會議에서는 國有國營案은 再次論議할餘地가업는것으로되인다 따라서 今後는 遞信省案에 對한 計數根據의 說明이라든가 民有民營案과 民有國營案과의 比較檢討等에 會議內容은 局限될것으로 적어도 이點에關한限 四相會議는 一步進捗을示하엿다고 볼수잇다 그리고 今後審議될 民有民營案의 長點으로主張되는點은 主로 產業의官僚統營에 依한企業能率低下를 防止하야企業全體의 安全된 普及發達을 期할수잇다는點이 中心인데 이外에 더욱實情에即한것으로 實行이 容易하다는것等을擧할수잇다 그러데 이半面에는 統制强化의 不徹底할것은 免치못할것이다 此에對하야 民有國營案의 立場은 國策目的에 適合한 企業合理化와 그實行이 可能한 諸理由가强調되며 他面에잇서서는 統制强化의 結果로서 料金減下가兩案中 何者에依하야 보다더크고도徹底的으로될수잇느냐? 하는等의諸點이 今後四相會議의 重要한論議內容이될것이다

電力民有國營 海軍側도支持

【東京電話同盟】四相會議의前途는 樂觀을 不許하야 相當히 深刻한 紛糾가 豫想되는데 延하야 民有國營案의 重要性及 海軍의 態度及 意向은 매우注目되는바이다 그리고 陸軍에서는 이미 遞信案支持의 態度를 表明하고잇스나 海軍으로서는 民有國營案을 原則的으로 支持하는 態度를取하고잇다 그리고 關內一部에는 民有에 强力的反對論이잇슴에 鑑하야 七日豐田軍務局長은 大和田電氣局長으로부터 遞信省案에 關하야 詳細한 說明을 聽取研究한後 海軍側의 態度를決定하게되엿다 또電力國營에關하야 海軍側은 大體如左한 意向을 갓고잇다

一、海軍으로서는 電力을 低廉豐富히 供給함을 第一目標로 强力的電力統制의 必要를 痛感한다

一、就中發送電의 國營·發送電의 綜合的合理化가 急務中의 急務로 民有國營의遞信省案도 또한有力한 實行方法의라고 信한다 그리고이以上의 具體的良案이잇스면 勿論賛成이다

一、國有國營은 財政上實行이困難이다 民有民營은 電力國家統制에 相當히 難點이 잇는問題이다

一、電力國策의 實行方策이 民有國營으로되거나 半官半民의 特殊會社로되거나를 莫論하고 要는第一目標인 低廉豐富의 電力供給、發送電의 强力的國家統制가適切히되다면 그만이다

陸軍態度强硬으로

政府、無任所相設置考慮

【東京電話同盟】政府는 過般決定한 重要國策의 具體化를 急히하고잇는데 就中 行政機構의 整備改善에 關하야 그 處理에 매우 考慮하고잇다 即 右問題는 現內閣組閣當初의 聲明에잇서 改革의 意思가 잇섯슴을 明言하엿는데 그後 國策決定에 對하야 寺內陸相이 廣田首相 馬場藏相과 會見하고 强硬히 陸軍側의 意向을 傳하야『單純히 政策遂行上의 必要에 應하는 改善에 그치지안코 곳庶政一新의 見地에서 現行政制度의 革新을 斷行하야 內閣制度의 改革、無任所大臣의設置等에 까지 積極的으로 考慮하기바란다』는 旨를 述하엿다 그리고 此에 對한 廣田首相及 馬場藏相의 態度는 極히 冷情하엿스나 最近에와서 政府首腦部의 一部에 右陸軍側의意向을 察知하고 무슨積極的方策을講究치안흐면 陸軍側이 그냥잇슬듯십지안흔 形勢임으로 그윽히 無任所大臣設置에 關하야서도考慮하고잇는 模樣이다 即現行內閣制度와 如한 各省割據의 現狀으로는 綜合的國策樹立及그企畫에 支障이생기는것은 事實이 證明하는바이다 또 各省의 大臣은 省長官을 兼하엿슴으로 國務大臣으로서보다도 各省大臣의 立場에서서 政治的行動을 取하는境遇가만허 大局的見地에 立脚하야 綜合的으로 重要問題를 檢討할 餘裕를 與하지안흠 現狀에 鑑하야 無任所大臣制를 設하려는것인데 無任所大臣設置에 關하야는 齋藤內閣時代에 鳩山文相이 首相에게 進言한일도잇고 또犬養內閣時代에도 故山本條太郞을 無任所大臣으로하려한 事實도잇스나 本問題에 關하야는 樞密院方面에 反對가잇섯고 또 그運用如何로는 사람을爲하야 官職을設하는것처럼도되므로 鄭重히實現치못한 重大性을 가진것이다 政府首腦部도 이方法에 關하야매우愼重한 態度를가지고 잇스나 何如間 陸軍의豫算概算請求提出을 中心으로 政府는無任所大臣問題에對한무슨意思表示가잇슬것으로 그趨移는甚히 注目되다

總督府人事異動

相當廣範圍豫想

局長、知事와課長級에亘하야 十月初旬頃에斷行乎

南總督과 大野總監着任後 必然的으로 斷行될것으로 보이든 總督府首腦部의 人事異動은 田中警務局長 伊達慶北知事의 勇退로 爲先 第一段의 異動은 맛낫는데 前記兩氏異動에 伴한 後任異動과 日間發表될 京城府三部制의實施 農村振興課의新設 洋行中인 大野學務課長의 後任及 事務官의 增員에 關한 官制改正에 伴한 大異動이 十月初에 斷行될터이라한다 勅任級의 異動으로는 吉田鐵道局長의 勇退 林財務局長 穗積殖產局長等의 後進을 爲한勇退、政界에 活躍을 期하고 退官待期하려는 安井京畿道知事等의 異動에 伴하야 十月까지에는 實現될것이므로 此異動도 相當히 廣範圍에 亘할模樣이다. 吉田鐵道局長의 後任은 鐵道當局으로부터 參入하고 林財務의 後任은 水田司計課長이 昇任 穗積殖產局長의 後任에는 土師慶南知事의 昇任은 거의確定、地方部長級에서 總督府事務官으로 轉入할 人物은 阿部慶北內務部長 高尾咸南警察部長 兵頭慶南警察部長 井坂平南警察部長等이 有力한 候補者이다.

人事·集會

▲田中前警務局長 十四日午後三時京城驛發東京에 歸還

▲上瀧基氏(新任慶北知事)八日午後十時五分京城驛發單身赴任

▲上瀧基氏(慶北知事)新任人事次七月來社

▲趙漢英氏(醫師)京城府橋南町에서 開業人事次來社

▲時實秋穗氏(前京城日報社長)辭任人事次七日來社

八面鋒

◇寺內陸相、어대까지 電力의民有國營案을固執하리라고.

◇國防을爲한主張이라하면 從業員의利害와는 距離가먼일.

◇叛亂軍政府가 正統政府로承認하여달라고 國際聯盟에代表를派遣.

◇國內戰에서 外交戰으로 一步를 내여노차는戰術.

◇不干涉을 放棄하지아니하면 總罷業으로 對抗하겟다고 佛勞働者가 政府에 肉迫.

◇西班牙內亂이 번지어서 佛蘭西의 政府까지 危機에 直面케되다는것은 歐洲政局의 暗澹을 說明하는 一例.

明年度朝鮮豫算 四億圓을突破?

總督府總豫算查定案을內示

未曾有의大膨脹!

總督府 明年度豫算은 財務局原案을 作成하야 大野政務總監手中에서 審議中이던바 大槪審議가 終了되엿스므로 七日各局에 此를 內示하고 各局에서는 明八日中에 右內示案에 基하야復活要求를提出하고 四、五日中에는 再查定을 終了하야 可及的速히 計數의 整理를 行한後 來二十日頃까지에 總督府로서의豫算要求概算書를 作成하야 곳永田司計課長이 携行渡東하고 니어 林財務局長이 渡東、拓務省에 對하야 그說明을 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總督府明年度 豫算編成에 잇서 政府의 增稅, 郵便料金引上、煙草價 引上等에 對한方針이 確定되여 잇지 안흐므로 總督府로서도 此를 別個의 問題로서 取扱하야 一般會計에의 繰入金에 對하야는 總督府로서의 決意한 最後案으로 右豫算案中에 包含될것인데 一般會計繰入問題에 關하야는 大藏省의 要求는 一千五百萬圓以上에 達한듯하며 此에 對하야 總督府로서는 風水害對策 各種產業의 勃興等 特殊事情을 强調하야 大體五百萬圓程度의 繰入에 交涉할意向下에 折衝을 進行할터이다 또 公債額은 旣定額二千七百萬圓에 新規京釜中央線建設其他改良工事等으로 二千三百萬圓以上에 達하야 合計五千萬圓을突破하게되엿스므로 이公債增發은 今後大藏省과의 折衝中最大의難關으로 豫想되는데 如何間 豫算要求總額에잇서서는 基準豫算三億二千九百萬圓에 新規一億二千萬圓을加하야 四億圓을突破하는未曾有의 大膨脹을齎來할것으로 豫想되다

中央과廣西間에 妥協案完全成立

李氏를廣西綏靖主任에、白氏는軍事委員에

國府、六日附로遂發令

【南京六日發同盟】中央政府의和平解決案은 드듸여 廣西派의容認하는바되여 妥協案이 成立되여中央政府는 本日左와如히 發令하엿다

任廣西綏靖主任 李宗仁

任軍事委員會常務委員 白崇禧

任浙江省政府主席 黃紹竑

右解決에 至하기까지에는 처음蔣介石氏는 李宗仁氏의軍事委員會常務委員 白崇禧氏의 浙江省政府主席就任을 要求하얏슴것이나 李宗仁 白崇禧兩氏는어데까지廣西省에 殘留할旨를 主張하야結局 白崇禧氏가 外遊한다는理由下에 右發令이 되것이다

白頭山探險記

行軍中뜸幕發見

威脅射擊에騷動

⑰ 徐椿

十一日의 出發地茂峰으로부터 神武城까지도 亦是、八十里길이다。이八十里길도 亦是 어제와 마찬가지로 密林地帶요、地面은 百花爛熳의 奇花妖草로 덥허 노흔데다。길은 險한데가 마타。실마리만치 좁은길(路)을 길이 넘는 灌木類로 가리어 노핫기때문에 바른 손은 장 이것을 헤치기에 써야되고、얼키설키한 나무뿌리가 路面에 露出한 것이 만코、또古木老幹이 路面에 橫倒한데도 만키때문에 눈眼은 恒常 땅을 드려다보면서 가야 되게 생기엇슴。萬若、손을 暫時만 아니 쓰고 잇서도 나무가지에 눈을 다칠 念慮가 잇고、또한 前列又는 後列의 사람과 雜談을 하거나 又는 周圍의 景致를 보기爲하야 조곰만 하눈을 팔다가는 곳 너머지거나 발을 다칠 地境이엇다。그러니까 이길은 한손으로는 장 나무가지를 헤치면서 땅만 드러다 보고 걸을수밧게업는 길이다。말하면 求景을 目的으로하야 가면서 求景을 못하고가는 길이다。말하면 이런 神祕한 山을 드러 오는 人間은 맛당히 고개를 숙이고 敬虔한 마음으로 드러올것이요、조곰이라도 放恣하게 左右하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뜻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 또한 한가지 妙한 理致가 잇슴을 發見할수가 잇다。勿論、千里大坪에 빽빽히 드러선 큰 樹林과 그아래 깔닌 數百가지의 奇花妖草를 初對面할때는 實로 威壓을 밧는듯한 森嚴한 感想을 느끼는 同時에 이런 景致는 仙境이아니고는 업슬 景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그러나 아모리 가도 些毫의 變化가 업는 꼭 가튼 景致라、가튼 景致를 이틀(二日)채보는 今日부터는 사람은 누구나 初對面時의 仙境感을 이저버리고 單調感을 가지게된다。아모리 가도 꼭 가튼 景致다。말하면 千篇一律的이다。한時間동안이나 땅만 드러다보고 가다가 비로소 머리를 드러 左右를 살펴보아도 그저 꼭가튼 그 景致、두時間동안이나 땅만 드러다보고 가다가 비로소 前後左右를 살펴보아도 그저 꼭 가튼 그景致다。이 地帶가 이러케 생겻는지라、그저 그러케 생겻거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만 드려다 보고 가도 조곰도 探景上에 損害될것이 업다。이때에 한 理致를 깨다르니、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조곰도 하눈을 팔지 못하고 땅만 드러다 보고 가야 될 地帶는 또한 생기기를 그러케 가도 關係치 안토록 처음부터 되여 잇다는 理致다。

이비슷한 理致는 한가지 더잇다。녜로부터 千里大坪의 稱이잇는 이 넓은 密林地帶는 나무가지가 서로 마주 뒤덥허서 하늘을 가리우고 잇기때문에 太陽의 直射를 밧지 아니한다。또한 길이 좁기는 하되 些毫의 傾斜를 感할수 업스리만치 平平坦坦하면서 兼하야 돌이 업다。그러기때문으로 古木老幹과 나무뿌리만 끌나 질호면 발이 부릅지 안케 거를수가 잇고、또 恒常 몸에 땀을 別로 내지 안흐면서 갈수가 잇는것이다。萬若 이地帶로하여금 太陽이 直射하며、傾斜가 急하며、兼하야 石礫이잇드라면 사이다도 업고 麥酒도업고 아울너 飲料水도 흔치 못한 無人地境數百里路程을 敢히 突破할 將士가 업슬것이다。이러케 생각할때에 사이다、冷麥酒 업는 地帶에는 그것이 업시도 歷歷히 단닐수 잇스리만치 처음부터 되여 잇고나! 하는 感想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警備隊長野中 高氏、同副隊長後藤恒雄氏를 아울러서 騎馬警備員은 五人이다。騎馬警備員五人中、大槪、三人은 最前列에 서고、二人은 最後列에 서는것이恒例이엇다。그러고 隊長野中氏와 副隊長後藤氏는 替番하야 最前列에 섯다。前列警備員、特히 騎馬警備員은 偵察役을 가지고 잇는 關係로 그들의 눈은 恒常 眼前遠方과 左右를 살피기에 奔走해 잇다。나亦是 本團團長인 責任上 最前列警備員의 直後를 딸려가면서 그들의 偵察役에 一念忠實함을 보고 感心햇다。

山中에서 第一무서운것은 猛獸도 아니요、毒蛇도 아니요、곳 사람이다。그다음은 사람이 잇는지도 모른다는것을 表示하는 痕跡物이다。茂峰서 約三十里를 간 곳에 約干、地陷한 곳이 잇다。最前列騎馬警備員은 約三마장을 相隔하야 前方 그地陷한 곳에 커다란 뜸막이 잇슴을 發見햇다。이때 警備員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저 뜸幕안에는 現在 누가 잇는지도 모른다。設使 거기는 업서도 近方에 伏兵하야 우리의 通過를 기다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면서 몸스름이 친다。이 瞬間에 警備隊長의 一令之下에 威脅射擊이 開始되여 數分을 繼續햇다。深山幽林中에서의 發砲聲은 참으로 그소리가 宏壯히 크다。千里大坪을 다 떠가지고 나가는듯시 轟轟如雷히 울니웟다。이옥고 사람 업슴을 알고 우리의 行軍은 繼續되엿다。

(寫眞은 우리를 놀내든 뜸幕=續)

ランランチック
뻣뻣하지도안코柔軟
치도잇은質도香氣도
말할수업시좃타愛用
은먼저이것으로부터
國成社

朝鮮日報社 安岳支局 電話二八番
九月四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六時半)
本人出現
◆R、K、O、라듸오超特作映畵 윌리암、에이、와이터監督 「쩌저로자-스」主演 쩌저로자-스、最初의主演映畵、朋色으로有名한映畵作家 사무엘、호푸킨스아담스、堂堂한品格을가추운明朗한珠玉篇
◆유나이테드社超特作映畵 레스리·하와드 말레·오뻬론 主演 深紅의徽章 (日本譯名紅はこべ) 萬丈氣焰을吐하고잇는로날드의傑作品、高雅한探偵活劇
◆新興キネマ特作映畵(全發聲) 乙女橋 江川なほ栄、龍田靜枝 主演 (次週封切) 諾?否?薔薇色恐喝曲、文藝映畵에 나오는사진、新興高田浩吉의 金龜特作五五の春(獨占封切)

朝報案內
本月三日에河能遠河祥遠河鎭圖三人의實印을紛失하얏사오니 該印章을潛私이使用하면無效로認定함
晉州邑蓬萊町一八四番地 河鎭圖

紙袋의製造를獎勵함 本業副業
千代田本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好職業 製造者募集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山羊 明本山羊牧場

恩給 最長期低利五年分까지立替、借換引受案內書進呈 京城府中學町一七ノ四 京城女師前 金星商會

金儲 カタログ呈 穀物膨脹機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電話福島四二二六番 大石堅機械製作所

丸善テント商会 (カタログ進呈)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一〇八

箕城醫學講習所生徒募集
一、募集科 九十八
一、出願期日 十月八日까지
一、開學期日 十月十日 詳細는規則要二錢切手
平壤府 箕城醫學講習所 振替京城二五五三六番

오케-레코-드
流行歌 (一九一二)
故鄕은눈물이어나
설음의별판
高福壽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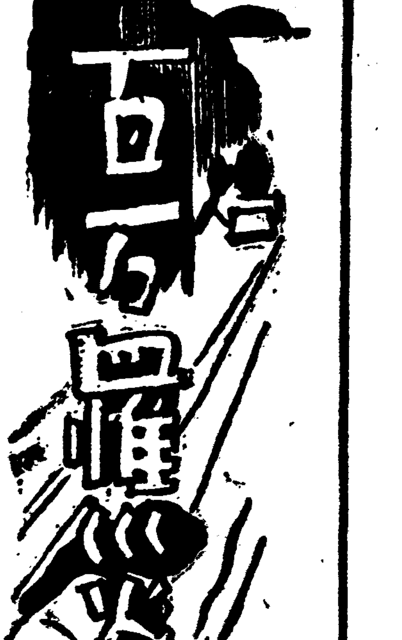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一六〇番)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學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編入學受驗準備
生徒募集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 (電本五三一六〇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萬國秘傳秘法寶典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〇

商標 千
고추가루 都賣
金山府草梁町 千壽商店製粉部 電話園一八二番



慶南災地에서 李鍾模 發

南國의 雄都를 夜襲한 破壞의 검은 帳幕

當面한問題는 罹災民들의 時急한 救濟에 잇다! 【四】

삼천포(三千浦)는 생선 만히 나는 포구로 근변에는 해면(海面)을매축하야 시가지도 훨신 넘어지고 점점 발전되여가는 어항(漁港)이다 그런데 이번태풍과해일로 말미암아 팔포(八浦)해변의 동금리(東錦里)와 서금리(西錦里)에서 유독히 해를만히입어서 이백여호의 민가가 날려가버리고 너머지고 집터는사나운물결에 쓸려가버렷다 가튼 삼천포시가지에서도 이두동리가 가장참혹한 풍재와 수해를입엇다

◇

이동리는 바다에서 몰려드려오는 풍랑을 그냥 바로부다치는대로 밧게되는곳이다 그러기때문에 그오막사리 초가들은 바람에 날리고 물에쓸려가버린 것이다 이것은 물의의 천재로 말미암아 버릴수 업는일로 삼천포읍(三千浦邑) 당국자가 여긔도 읍민이 안전히 살수잇도록 하자는 성의가 잇섯드라면 방파제(防波堤)가튼것을 맨드러두지 안햇서는 안될것이다 터욱이 이 두동리는 빈궁한 사람들이 만히 사는곳이므로 그 정경은 한층더 비참하다 이미 지난일은 여려말로 되푸리할것도 업고 아프로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이다음에 또다시 이번과가튼 참해를 입지안토록 방비하여두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

진주(晋州)의 수해는 팔십로인으로도 처음으로 본는 대수재라고 일캇는다 진주적으로 한꺼번에 기우이 아니 전시가가 물에 흘가운데 잠겨버린데는 경상남북도를 통하여보드라도 둘도 업슬것이다 바람으로 전등은 꺼저버리고 전신과전화선도 끈처저버렷스니 시가는 암흑천지요 남강(南江)상류의 수량은 려락을 취하야 엄아가 업섯다 그러고 신분으로라던으로 태풍이 남조선지방으로부터 다친다는 예보는 수차 잇섯스나 그풍세(風勢)의 정도를 짐작하지못하엿승터려 군청이나 경찰서에서 특별히 경보(警報)한장도 져부처서 시민에게 미리 단속을 시킨일도 업섯스므로 모다들 쏘다저나리는비만 걱정하고 설마어떠라하고 그냥 평상시와 다름업시 지내고 잇섯다

◇

그러나 폭우끄테 남강물은급속도로 부러다 드듸여 서쪽뚝이 넘고 앵정(櫻町)뚝이 터질지경이다 이때에 경찰서와 소방대와 수방단은 일제히 출동하엿다 갑작히 닥처나리는 힘찬홍수를 막아낼 도리가업섯다 『싸이렌』조차 전과의 고장으로 알미야 울릴수도 업섯다 하는수업서서 『징』을 울리고 동리마다 도라다니면서 위급하다는 신호를하엿데 시가에는 곡성이 진동하엿다 아모것도 가질여지가 업다 그저 제가끔목숨만 구조되엿스면 다행이다 죽엄을 피하는 다름박질이다 그래서 인명에는 별로 희생이 피해하엿다

◇

그러나 두군데의 뚝은 마침내 터저버렷다 경남의 산간도시로 또는 촉석루(矗石樓)로 의암(義岩)으로 전하야 유명한 이 진주의 시가는 순식간에 진흙물속에 잠겨버렷다 모든 갑잇는 물건과 아까운 재산은 사정업시 평등으로 아자연의 위력가운데로 휩쓸려가버린것이다 누구든지 진주시가의 물에 빠진 광경을 한번목격한 사람이면 가슴이 답답하엿슬것이다 지저분하게 느러잇는 씨레기뎜이를 보앗스면 신경이쇠약한 사람은 당장에 발광하게될지경이오 여긔저긔서 나는 썩는 냄새를 마탓스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역증이낫슬것이다 엇잿든 파멸의 도시다 산뜻하고 물뜨은엿 자태는 차저볼길이 전연업시되여버렷다

◇

진주측에 파구처버린 진주를 어떠케해서 회복시킬가 하는것 개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일이다 국가적으로 예산이 당면의 긴급한문제이다 개이 서야될일이다 그리고 진주의 각금융긔관에서도 이때에단연히 진주갱생을위한 특별한방책이 서야 될것이다 긔왕의신용대부(信用貸付)를 그냥 계속시킴은 물론이고 담보대부(擔保貸付)일지라도 채권을 독촉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채무자에게 지불유예(支拂猶豫)의 특전을주고 재기할 자금까지라도꾸어주지안해서는 안될것이다 만약 이만한일이될수업다면 긔왕의채권은 회수할 긔한이막연할것이오따라서 진주의경제계는 아주적막하게되고말것이다 그러고 중산계급이하 궁민에게 대하야는당국에서 단번에 갱생할수잇는시급한 조처가 잇지안흐면안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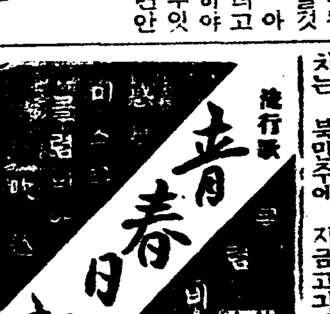
今夜 白頭山映畫及講演 午後七時半於本社大講堂 【第八日】

不規則한天候가 當分間繼續

仁川觀測所氣象諜報

【仁川支局電話】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에 아라본즉 긔압배치는 북만주에 지금고긔압이잇고 일본동해에 칠백오십륙미리의 저긔압이잇서서 조선주위로부터 북부는 그고긔압과 저긔압의경계가되여잇슴으로 조선의일긔는 불규측하다 당분간 래일까지는 흐렷다 드렷다하는 이불규측한 날씨가 계속되리라고한다 칠일 오전여섯시현재 전조선각지우량은 아래와갓다

中江鎭一一미리 新義州二七미리 平壤一〇미리 雄基三미리 京城一미리 城津六미리 元山二미리



簡易保險課의 醫療班活動

체신국간이보험과(簡易保險課)에서는 이번 수재의 피해가 심한곳을 아홉구역으로 논하서무료구호를 할양으로 의사 간호부 서긔 각한명으로써 순회의료반을 조직하야 다수의 응급약(應急藥)과 『와구진』능약을 가지고 파견하엿는데 그일정은 팔일부터 이십구일까지라하며 이밧게 제사구(울산 량산 경주) 제오구(고령 성주 지례) 제륙구(영천 의성 왜관)에 대하여는 부산 대구로부터 제칠구(고성 양양 강릉)에 대하야는 원산으로부터 각기 건강상담소의순회반을 출동시키기로 되엿고 제팔구(천안 조치원 증평 괴산 음성 무극 충주) 제구구(전주 진안 상례 단양 제천 원주 횡성 양평)에는 이미 경성에 잇는 건강상담소의순회반이 출동하야 활동하고잇다한다

漁船五十隻行方不明 十七名은 遂溺死

救助船出動、仁川署警備船掃海搜查中

德積島近海颱風害

지난 오일오전 여덜시이십분쯤에 맹렬히 이러난 풍랑으로말미암아 경기도부천군 덕적도(富川郡德積島)바다에서 파선된 어선들의 상황을 조사하러인천경찰서 경비선이 륙일오후 여섯시에 노흔물결을 무릅스고 근근히 출동하엿는데 칠일오전열한시에 그경비선으로부터 인천경찰서로 온 무선전보를 보면배여덜척이파선되여 행방불명자가 이십삼명이엿는데그가운데서 십칠명은 죽은것이판명되엿스며열두명은 무사히 살아잇다한다 그러고 고기잡이배 오십척은 행방불명중인데 그배에 탄사람은 합게이백오십명으로 연평도(延坪島)나 주문도(注文島)방면에 피란하여잇지안흔가 추측된다한다

또륙일 오후여섯시에 인천에서제이십이 빈전환(濱田丸)은주문도(注文島)에 해운환(海運丸)은 덕적도(德積島)로 구원하러출동하엿다한다

永宗島近海의 二十餘隻은顚覆?

被害者는大概海南人

【仁川支局電話】전라남도해남군 화산면 관동리(海南郡花山面關東里) 박종순(朴宗純)(三)박우섭(朴禹燮)(二)과 그의안해 리씨(李氏)(二)외 네명이범선을 타고 지난사일 그곳을떠나 인천(仁川)서 오해리(海里)쯤떠러저잇는 덕적도(德積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던중 사일오후열시경에 돌연 폭풍을 맛나 파선이되여 전과박종순만 영종도운봉리(永宗島雲峰里)에 밀려서 백일선(白日仙)의 배에구제되고 외에 다른여섯사람은 죽엇다 칠일아침 박종순이가 인천으로 구조되여왓는데 그의말을들으면 덕적도에도 륙십여척의 어선이 잇섯는데 사오척만은 무사하엿고 그나머지는 모다조난당하엿다하며 영종도에서도 이십여어선이 새우잡이를하다가 모다전복된 모양이라고한다 인천경찰서에서는 칠일오전여덜시반경에 『가사사긔』환 팔미환(八尾丸) 빈옥환(濱玉丸) 광휘환(光輝丸)의 네척 경비선에 서원일곱명이 분승하야 덕적도로향하야 구조하려떠낫는데 칠일오전열시경에 현지에서『가사사긔』환에서부터 온전보에의하면 행방불명된사람이 이십삼명인데 그중 십이명은 확실히 사망되엿고 경비선으로 구제해낸사람은 열한명이라고한다

仁川港內의 船舶被害卅七隻

損害는三千圓假量

지난오일 오전한시쯤부터 인천바다에서는 강풍이이러나서항구에대여잇든 선박가운데서 삼십칠척은 물결에밀려 안벽에부다처서 파손되엿는데 그손해는 삼천원가량이라한다

醉客蠻勇

시내하왕십리정에사는 김경복(金景福)(三)이라자는 여섯날 새벽 네시반쯤되여 술이잔득 취하야 집으로도라가든길에 종로오정목 칠십오번지압길에끼세여잇는 우편통이 귀치안헛든지 발길로차서 넘어트리고 그냥동대문서류치장에인치되엿다

三浪津驛夫殉職

락동강(洛東江)물이 넘친뒤로 이날까지 삼랑진(三浪津)정거장구내는 리재민들의 지나다니는길로 회해버리고 말엇슴으로 그역에서는 만일의사고를 막기위하여 리철수(李哲守)(二)라는 역부를시켜서 그것을 감시시켜나려오든중 그는 여섯날오후여섯시오십분때마침 지나가든 제삼십이렬차아를 가로건너가려는사람을보고 이것을 제지하려다가 무참하게도 그차에치여죽엇다

本町에行旅屍

칠일아츰 본정(本町)오정목 칠십팔번지압길에 나이가 약사십이세가량먹어보이는 조선사람이 죽어잇는것을 통행인이 발견하엿다。 소관본정서에서 검시한결과 행려병사(行旅病死)로 판명되여시체는 경성부청(京城府廳)에 인도하엿다

二科展에 金君入選

구월이일부터 상야부미술관(上野府美術館)에서열린 이과회(二科會)제이십삼회전람회의 출품심사는 지난이십구일에 끗낫는데 그중에 조선평남강동군삼등면옥정리(朝鮮平南江東郡三登面玉井里)출생으로 무장야길상사(武藏野吉祥寺)에잇는 김종찬(金宗燦)(二)군이 『M양』을출품하야 초입선하엿다 김군은팔년전에 도동하야 신문배달을하여가며 제국미술학교와 문화학원(文化學院)미술부를졸업한후 등전(藤田)화백문하에서 서양화를연구하든중 이번에 초입선을 한것이다

五百餘名共軍과 守備隊大激戰

前後十餘時間·雙方損害不少

長白縣十五六道溝서

【咸興】장백현 십오륙도구(十五六道溝)에 모혀와서 부근촌락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일편의대(便衣隊)를 강안(江岸)에 파견하야 대기(待機)중에 잇든 공산군 동북인민××군(東北人民××軍)오백여명은 드듸여 오일오후 아홉시경부터 륙일아침까지 월경(越境)한 수비대(守備隊)와 각경찰대가 전후 십여시간동안 대격전중이며 쌍방에 모다 심대한 사상자를 내인듯하나 아직 자세한보고가업다 이공산군은 종래의 산란부대와는 전혀달러 무긔등은 모다완비하야 잇스며 일제히군사적훈련을밧고잇는 정예부대라고 하는데 그중에는 소련(蘇聯)의 정규병도 십여명이나 끼어잇다고한다

그리고 이격전은 강안(江岸)으로부터 불과사오십리의 근거지에서 계속되고잇슴으로 조선내 국경방면의 인심은 극히 소란하며 마치 전시상태와가튼소연한 상태다

辯護士試驗 合格者發表

금년도 변호사합격자는 칠일 오후무시 총독부에서 다음과가티발표되엿다

洪淳曄 白鐵洸 高性彦 洪承萬 裴庭鉉 藤岡南海男 兪鎭奎

총지원자 이백이십팔명중 조선인은 일백륙십오명 일본내지인은 륙십삼명이엿고 팔월이십일 예비시험합격자는 팔십삼명인데 그중조선인 사십구명 일본내지인삼십사명이요 예비시험면제자가 팔십삼명인데 조선이칠십삼명 일본내지인 열명으로 예비시험합격과 면제자합격 일백륙십삼명중 그본시험에 조선인일곱명 일본내지인 한명 여덜명이합격하야 륙일 구두시험을 한결과 가전과와갓다

青年十餘名을 格鬪끄테 逮捕

七日朝興南署突然活動開始

內容은某種運動의綻露인듯

【興南支局電話】일헷날 아침여덜시쯤되여 소낙비가 억척가티 퍼붓는속에 흥남서(興南署)에서는 갑작히 긴장한비츨 띄우고 그서고등계주임이 총지휘가되여 경사복경관 이십여명을 거느리고 모처로 달려가서 직공차림을한 열두명의 청년을 한바탕 격투한끄테 증거품으로 큰『트럭크』한개와함께붓잡어왓다 아직그내용은 알수업스나 어떠한[illegible]국에대한 모종사건이 드러난것이나 아닌가 추측된다

徽文軍連霸

七種目新記錄의 大收穫

綜合競技水上戰終幕

스포-츠朝鮮의 年中盛事! 朝鮮體育會主催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의 첫봄을 華麗하게裝飾한 水上競技는 六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府營풀에서 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中等校部에서는 豫想그대로 常勝軍徽文高普가 總得點百二十點半으로 連二年制霸하엿스며 이날 七種目의 同大會新記錄을 作成하야 劃期的收穫을 거두엇다 이리하야 同大會 副會長 兪億兼氏로부터 優勝한 徽文高普에게 優勝旗를 各個人入賞者에게는 賞狀과 메달을授與하니 때는午後五時 記念할大會의 幕은 다치엇다

◇中等校部

【三百米混合繼泳決勝】1徽文高普(秋成求、金在玉、朴性用)四分一五秒八 2仁商高普 3養正高普 4二高普 5一高普

【四百米自由型決勝】1金石永(仁商)六分三〇秒八 2朴性用(徽文) 3金龍振(徽文) 4金在俊(養正) 5朴台圭(二高) 6李[illegible](二高)

【百米自由型決勝】1洪淳仁(培材)一分三秒二(同大會新記錄) 2金石永(仁商) 3金仁洙(仁商) 4金永哲(二高) 5金炳漢(徽文) 6洪鍾均(公民)

【二百米平泳決勝】1李恩生(徽文)三分一四秒六(同大會新記錄) 2朴亭子(徽文) 3朴聰喆(培材) 6金相鎭(養正)

【八百米繼泳決勝】1徽文高(朴性用、金文玉、金炳漢、秋成求、)一三分二秒六 2養正高普 3一高普

【二百米繼泳決勝】1徽文高(朴性用、金文玉、金炳漢、秋成求)二分一七秒 2仁商高 3一高普 4二高普 5養正高 6中央高

【百米背泳決勝】1秋成求(徽文)一分二八秒(同大會新記錄) 2李鍾浡(徽文) 3劉鎭在(仁商) 4林星變(養正) 5樂文秀(一高) 6朴贊璿(二高)

【二百米自由型決勝】1洪淳仁(培材)二分五六秒四 2金仁洙(仁商) 3柳重烈(一高) 4金文玉(徽文) 5金炳漢(徽文) 6崔鵬顥(中東)

【八百米自由型決勝】1朴性用(徽文)一三分三八秒(同大會新記錄) 2金在俊(養正) 3金龍振(徽文) 4柳重烈(一高) 5閔泳昌(一高) 6鄭規澤(徽文)

【四百米平泳決勝】1李恩生(徽文)七分四秒 2朴聰喆(培材) 3朴亭子(徽文) 4崔瑗鎬(公民) 5金和鎭(養正) 6金在玉(徽文)

◇一般部

【八百米自由型決勝】1李熙鎬(普專)一三分一八秒四

【四百米平泳決勝】1盧貞鎭(醫專) 2金興基(京城)

【百米自由型決勝】1金載榮(京城)一分一一秒六 2崔載灝(開城)

【二百米平泳決勝】1盧貞鎭(醫專)三分一九秒 2金興基(京城)

【二百米自由型決勝】1金載榮(京城)二分五二秒三

【二百米背泳決勝】1吳振榮(京城)三分七秒F(同大會新記錄)

◇各校得點表

【位順】	三百混合	百米自由	二百米同	四百米同	八百米同	百米背泳	二百米同	二百米平泳	四百米同	二百米繼泳	八百繼泳	計
1徽文	14	2	5	9	12	12	12	14·5	12	14	14	120·5
2仁商	10	9	5	7	0	4	3	0	0	10	0	48
3養正	8	0	0	3	5	3	5	1	2	4	10	41
4一高	4	0	4	0	5	2	0	0	0	7	8	30
5公民	0	1	0	0	0	0	0	2·5	3	0	0	6·5
6中央	0	0	0	0	0	0	0	0	0	2	0	2
7中東	0	0	1	0	0	0	0	0	0	0	0	1

野球爭霸第一日經過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第一日은 六日午前十時五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始된바 平壤實業、京城府廳、淸津鐵道等이 各勝하엿다

◇投捕(府廳)松元─崔仲乙(大邱)

岩瀨─百合

大	0	0	0	1	0	0	1	2	0	0	0	0	4
府	1	0	0	2	0	0	0	0	1	0	0	1	5

◇投捕(淸津)田中─宇野(全州)

國分─金子

全州	0	0	0	0	0	0	0	0	1	1
淸津	0	0	0	1	1	6	1	1	1	11

天氣予報

概況 七五六미리의 低氣壓은 上海、靑島方面과 元山압바다에 잇서 不連續線을 보이고 잇다 高氣壓은 北滿洲에 七六五미리 日本本州西部에 七六〇미리를 보이고 잇스며 千島方面은 氣壓이 약하다 滿洲는 흐리고 朝鮮도 흐리고 잇스며 或은 小雨가 잇다 日本內地는 개이고 裏日本과 北海道는 흐리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흐리며 때때로 小雨가 잇스며 明日도 갓다 京畿道 全區도 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六
同 最低	二一度八
今朝 最低	二二度四
今日 正午	二四度八

遝至하는 水害救濟金品

朴春淑女史溫情

現金百圓을本社寄託

금번의대풍수재는 고금에못볼 대천재로 백만명에미치는 동포들이 도탄에서고초를당하고잇서 한번이소식을듯는자는 실로눈물업시는 듯지못할형편이다 따라서 십삼도방방곡곡물론하고 리재민을구하자 내동포를 구하자는소리는 물끌틋이 이러나고 잇는중에 시내 창신정(昌信町)일백사십삼번지에사는 박춘숙(朴春淑)녀사는 본지에련일보도되는 삼남지방과 관동지방 리재동포들의참혹한 정상을듯고 한벌옷한끼밥이라도 난호자는 따뜻한정성에서 현금일백원을 칠일오전 본사로 긔탁하야 재지에 전달을청해왓다

金氏老人特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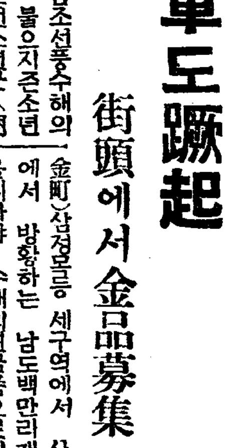
담뱃갑모아災民에

륙일 비가끈힘업시 나리에도불구하고 시내 창신정(昌信町)일백사십번지 박대진(朴大鎭)씨모당 김씨는 칠십이 넘은늙은몸을끄을고 일부러 본사까지차저와서 이번수해에 못먹고못입고 헤매고잇는 리재민에게 단밥한끼라도 먹게하여달라하고 금 십오원(金十五圓)을 긔탁해왓다 김씨는 자긔살림사리도넉넉지못하면서평소 그아들로부터 담배갑스로 바든돈을 저축한것이라고한다

奇特한炳朝君

十圓을災地동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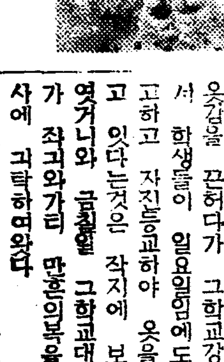
이번 삼남대풍수해지대의 책업고、학용품업서 학교에도 가지못하는 어린동모들을위하야 시내삼청정(三淸町)일백삼십삼번지 장병조(張炳朝)(八)군은현재 덕수보통학교(德壽普通學校)일년급에통학중인 나어린 소년인바 이번 재지의 어린동모들의 비참한소식을듯자 평소에 과자갑에서 일전 이전 모핫든 돈십원을본사에가지고와서재지로보내달라고청해왓다(사진은 병조군)



奇特한 朱少女

굶는동무에게 이돈을……

부내 서린정(瑞麟町)팔십팔번지 주석근(朱錫根)씨의 이녀 순경(順景)(六)은 현재 유치원 갑자원(甲子園)에 단기는데 칠일본사로 벙어리를 들고와서 불상한 어린동모에게 전하여달라고 현금 륙십팔전을두고갓다(사진은 순경양)



少年軍도蹶起

街頭에서金品募集

가두에나서서 남조선풍수해의 참상을 민중에게 불으지즌소년군의 활동 시내조선소년군(朝鮮少年軍)사십칠호대(虎隊)대원 홍정수(洪正洙)군외오명은 립정정(笠井町) 림정(林町) 황금정(黃金町)삼정목등 세구역에서 사선에서 방황하는 남도백만리재민을위하야 수해의연금품으로의복이백륙십팔점 쌀열흡 돈으로팔원을거두어 칠일본사로가저와서 재지로보내달라고 부탁하얏다

京城保育學生會

衣類三百餘點

부내 청진정(淸進町)에 잇는 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學校)에서는 륙일부터 재지에 보내랴고 여러가지 옷을 모으든 일방 새옷감을 끈허다가 그학교강당에서 학생들이 일요일임에도 불고하고 자진봉교하야 옷을 짓고 잇다는것은 작지에 보도하엿거니와 금칠일 그학교대표자가 작긔와가티 만흔의복을 본사에 긔탁하여왓다

저고리	一九五點
치마	六七點
바지	四二點
내의	二九點
보선	一二點
양복	一點
족기	一點
두루막이	二點
計	三五九點

京城保育學校學生會一同

三角町町會

一百五十圓

부내 삼각정(三角町)정회에서도 그간 정회원열함분이 재지동포를위하야 정내각호를 방문하며 모흔 구제금 일백오십원을 칠일 본사에긔탁하여왓다

華溪寺에서도

救濟金品託送

동소문밧(東小門外)계잇는 화계사(華溪寺)에서는 리재동포에게 전하여달라고 칠일 다음과가티 본사에 가지고왓다 ▲現金八圓▲白米一俵▲衣類七二點

◇新築記念 來六月十五日까지 無料診察藥價半額 校洞入口 樂園町一九三 小兒科內科 楊在植醫院 獨房入院室溫突完備 電光一七五二

당선의 事業을 成就하서라면

지금은 能率時代엡니다、아모리조흔理想과 훌륭한 事業을 經營한다하더라도 身體가 虛弱한분은 健全한 精神을 發揮치못하며 恒常憂鬱과 煩悶속에서 愉快하게일을對하지못할뿐만안이라 그能率에잇서서도 健康者에 절반도따르지못하야 드듸여 一生의큰事業을 成功치못하고마는것이니 오즉 당신의事業을 成就하시기爲하야 무엇보다도 먼저 身體를健康히 하실것입니다 여기에虛弱者에게는諸病을退治하고 健全한 身體로 改造하며 健康者에게는 一層더 精力을增進식히는 『蔘茸精』을 紹介하여드리오니 요사이 흔히 廣告만을 爲主로하는 다른補藥과갓치 역이지마르시고 一次 試用하신後 그眞價를 認定하서와 東西四海에 널니 傳하실줄 밋고 勸하는바입니다

갓흔길에잇는 運動家諸君께 徐廷權

나도 『蔘茸精』을 愛用한다 [illegible]

못대神通스러움을 禁치못해 中等學校 [illegible]

얼른 봄 虛弱體質으로 因하야 病弱하게된 몸은 病的症狀이 日로 늘어나 [illegible] 주저하는 주제에서도 [illegible] 性味라 제아모리 [illegible]하다는 藥이라도 아주 대수롭지안케 생각하드니 이번에 偶然한 機會로서 『蔘茸精』을 먹여본結果 매우두드러진 效驗을보앗기로 못내 神通스러운생각을 禁치못합니다

高速度補血強壯劑

精茸蔘

主治效能

精力增進、肺結核、萎黃病、急慢性貧血、腺病、小兒發育不全、神經衰弱、ヒステリー、月經不順、産前産後、諸病恢復期、其他一般病弱者

(二五〇瓦入·五〇〇瓦入)

全鮮有名藥店에서팝니다

京城 朝鮮商會

安岳地方紹介版(其二)

三千町步干潟地 今日에는沃畓化

關係者人도八千餘名의多數

安岳唯一의金農場

開拓水利事業이 完成된 黃海道에는 靑田及鹽田地帶이 天獻의惠澤을 만히입어서 安岳郡內에도 開拓된곳이 五六處이다。其中第一面積도크고 朝鮮人合名會社로된 金農場부터들기로하자

◇資本은 四百萬圓의 合名會社金農場은 大遠、安岳、文山、安谷의四個面의連 總面積이 二千五百町步이고 小作人이 一千二百戶에 人口八千名이 金農場에달려잇다 事務所를 大遠面龍串里에두고 事務員이 四十餘名인데 創業은 昭和三年三月에 安寧水組起工과가티 始作해서 昭和五年에 總工事費一百五十萬圓을들여서 完成되엇다 平年秋收高가 七萬五千石 小作人의 每戶耕作은 二町步가 普通이엇다 小作人全部를보면 六割이 本住民이고 四割가량은 移民이다 移民者들이 들어와서는 至今負債는 全部를갑고 아프로는 貯蓄케되엇다 이야말로 偉大한 事業이다 經營者 金廉淵 金廉農 金鴻亮 金同亮 鄭流裕 五人인데 農場長 金鴻亮 理事 鄭烈鍊諸氏이다

◇特殊施設

一、小作人貯蓄組合 名稱은 金農場興産組合이라고해서 每年 手取租百分之五以上을貯蓄키로 되엇는데 昭和十年三月末現在貯蓄高가 八萬圓가량이다 最高貯蓄者가 五百圓 最低가二十圓 平均六十七圓가량은모다 貯蓄이 되어잇다

二、高債整理 小作人家計更生을 圖하기爲하야 昭和十年三月까지 高利債를一齊히 整理되여 農場에서 年七分利로 約五萬圓償換整理하고 農場은 今後五個年期間內로 農場區內에는 高利債를 一掃할作定이다

三、冠婚喪祭改善 節制生活을 爲하야 小作人의 冠婚葬祭는 事件前에 申請하야 農場에 承認을 受하되 農場에서는每件十圓式을補助하야주엇다

四、燃料及飯米等을 廉價供給 藁을 燃料로 使用하면 副業原料가 不足되고 飯米는 一年을 通하여 白米를 使用하면 現下家計로는 負擔이過重함으로 農場은 安米工場을 建設하고 安米副産物籾殼를 燃料로 兩米는 飯米로 廉價供給한다

五、副業奬勵 叺及繩製産을 奬勵하며 生産品은 農場에서 買入하야준다

六、事務員敎育費補助 事務員子弟敎育에對하야는 初等學校에는 每月七圓式 中等學校에는(男子만限함)每月十五圓式이다 以下略

◇事業計畫 水源關係에는濟當한곳이다 干拓地를 干拓하기爲하야 大杏面鳳谷里로부터 苕島西端까지 一千四百八十八間 苕島東端으로부터 鐵島西端에이르기까지 四百七十六間 鐵島東端으로부터 北島西端까지九百六十八間及 北島東端으로부터西河面下端里까지 二百六十二間의 防潮堤를築設하고 潮水를막엇다 그리고 降雨時集水區域一萬五千六百八十八町步에모힌 雨水는 四十個所의排水閘門을 設置하야 排除키로되고 灌漑用水源은 山村川上流月村里에 灌水面積一百四町三段 貯水內容積五百六千百〇六萬立方尺의 貯水池를 만들고 延長 三千九百三十三間의 導水路로 東西兩幹線에分流식히고 그로써 支線支渠로 灌漑케되엇다 工事着手는 昭和五年五月에 貸付免許와가티 六個年間工事期로 豫定되엇는바 中間出資問題等으로 工事中止가 二三次가잇엇다 故로 延期되어 昭和十三年度에나 完了될것으로보아 事業費豫算額四、〇五七、〇〇〇圓 事業完成後收穫高六三、〇〇〇石

大林農場

大遠面龍串里에位置를두고 諸般事業이 金農場과 꼭갓고 事業進行이 順調로되고잇서 地主인 大林氏의 偉大한事業인同時에 全朝鮮에도 놀라운農場이다 小作人等도 安定이되엇고 開拓된地區及 編成된 農場의 內容은 다음과갓다

◇旣成畓 九三、〇〇〇坪

◇畓田 三、六六九、九〇〇坪

◇合計 一千二百町步

◇小作人移民 二二戶

◇地主民 四三〇戶

合計 四五二戶이다

金海農場

鳳山朝鮮人所有의 金海農場은 安岳面海倉里에 五十三萬坪을十九萬圓에 사드려서 年收穫高가 二千七百石式나고 小作人이 一百十七戶이나된다 이도靑木農場이라고하는 日本內地人의 開墾한土地를 사드린것이다

各界의重鎭

勤勉、實踐의人 元老 元楨溥氏

安岳을 말하면 海西舊邑과同時에 富邑을 말하게되면 勤實과 實踐의人物을 主로하야 언제나 機會를엿보고 私財를 기우려 事業에盡力하는人物을들수잇다 其中安岳의 長老이고 巨富인元楨溥氏는 子弟들의 敎育을더욱 힘쓰고 安岳社會에는 하나를 빼지안코 誠力을 다하는분으로 社會的으로人望이 노파特히 父母에게 孝道가 至極하야 父母의 말슴이면 무슨일이나 몸을밧첫다 今般安岳高普期成에 三萬圓의 巨金을 내고 또다시어 出産地西河面新農里에 三萬圓을 또 내어서 普通學校를 도세우는등 社會事業을爲하야 日常努力을不斷한다 이는安岳의 恩人이요 海西의主人이다 아프로 좀더事業을 繼續하시와 文化都市가되도록 盡力을 바란다 寫眞은 元楨溥氏

私學界의恩人 崔昌林氏

楊山幼稚園을 말하라면 私學界의 恩人崔昌林氏를 말하게된다 氏는父母에게 孝道하는人望있는 篤志家이다 嚴父의 臨終과同時에 經營難에 빠저잇는楊山幼稚園을 引繼하야 經營케되엇고 一萬圓價値의 土地를내어서 基礎를 튼튼히 만들엇다 또 安岳高普期成에도 二萬圓의 巨金을 自擔하게 되엇스니 氏의 篤志이말로 세상스럽게말할必要를 느기지안코 다시금 氏도 遠大한 抱負를 가지고 事業이잇슬것을 밋는다 氏는健康하야서 事業에奮鬪 活動을바라는바이다 (寫眞은 崔昌林氏)

有志 金應石氏

黃海道安岳에 잇서서 몬저 敎育機關의 施設擴充은 鐵道期成이 急務이다 故로 金氏는 老人이라도 直接 鐵道期成會長의 職에任하고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 至大한 犧牲을 하얏다 氏는 子弟의 敎育은勿論 敎育事業에 日常有意하는바 安岳高普期成에 三萬圓의 巨財를 寄捨하야 安岳巨富의 一人인데 모두가 自手成家한 志士이다 氏는 鐵道期成하기까지의 努力을 不斷히할뿐더러 日常對外에 活動하고잇다

文士 全武吉氏

「朝鮮之光」雜誌에 多年間執筆을하고 잇엇고 朝鮮日報政治部記者로서도 職務를 誠意잇게보다가 「大潮」雜誌의 編輯兼發行人으로 朝鮮文壇을 爲하야수업는 애를 태우다가 至今故鄕인安岳에서 修養을 하면서 祖母와 偏母에게 至極한 孝道를하는 靑年全武吉氏는 그저간 創作과紀行文을 紙上에 發表한바가만타 氏는文學은勿論 音樂運動에 趣味를갓고 日常 心身修養에全力하고잇다 氏가 一次中央舞臺에進出을한다면 朝鮮文壇에 적지안흔 衝動을이르킬것이다 그의抱負와 腹案은 不遠間 紙面에 알려질것으로 一般은企待가크다바 잇스며 安岳高普에 一萬圓의巨金을 寄捨한篤志家이다 寫眞은 全武吉氏

醫師 車應斗氏

安岳刀圭界의 元老이고 特히外科에 名聲이 노픈 車應斗氏는 刀圭界는勿論 實業方面에도 活躍하야서 經營困難에 허매는 楊山幼稚園을 率先하야 設立者의 任務를지고 社會的으로 活動하야서 海西一帶에 遠近에 이는 幼稚園을 만들기까지 갓은 努力을 다하얏다 許可問題及 其他에도 直接活動을하야 金新築을 ... 그외功績이 偉大하야 一般社會의 信望을바드면서 刀圭界의重鎭그대로 獎勵하다

宗敎家 金善亮氏

氏는 靑年有志로 第一人者이엇다 그리고 長老敎의 靑年長老이고 敎會內에 事業도 萬難이지만 社會事業의 만흔功이잇다 YMCA를 創立하고 今般安岳高普期成에는 더할수업는 애를 만히썻다 氏는高普期成에對하야 如左히 말한다

安岳高普期成은 一地方의 利上 又는形便에依한 敎育機關이아니고 이는 朝鮮敎育界의 一分子인同時에 全朝鮮的으로만들어 내 高普期成會이다 故로 이는 一個地方別로볼수업고 朝鮮的으로볼수잇다 安岳高普期成을爲하야 朝鮮社會가 다가티 祝福해주기를바란다 寫眞은 金善亮氏

公醫 宋榮璨氏

安岳의 私學界를 말하면 海西地方의 자랑 安新普校를말한다 同校를 卒業하고 同校設立者이든 宋榮璨氏는 母校를爲하야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多大한 犧牲을하야서 今年의 十二萬圓財團法人을 만들엇다 그리고 常務理事로 잇스면서 刀圭界의 元老이고 公醫의職으로서 貧困者의 慈父가 되어잇고 이번 安岳高普期成에도 三千圓 巨金을 寄捨하얏다 氏는언제나 溫厚한 性格의 所有者로써 安岳社會事業은 하나도 빠저서 보지안하서 社會的으로 人望이 놉흔이만하다 더욱 安新普校維持에 全力을 기우려 繼續的으로 努力하기에 힘쓴다 寫眞은 宋榮璨氏

將來가囑望되는 醫師 尹元曦氏

安岳刀圭界의 新進으로써 海州道立病院에서 多年間 經驗을 쌋코 安岳에서 開業한지 不過一個年이라도 醫學을 귀신가티 治療한 事實이 만허서 絕對한 信賴를 가지고잇다 氏는 溫厚한 人格者이고 또한 將來를 囑望하는 安岳社會를 爲하야 큰抱負를 가지고 잇으며 企待가 크다

刀圭界의希望 醫師 尹相熙氏談

우리安岳의刀圭界로보면 比較的 他郡에比하여 遜色이업고 도리어優越狀態에잇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닐이만한程度이다 然이나 아직도 무엇보다 一大急先務가잇스니 이것이卽내가말하려고하는 杏林界의外上制度이다 勿論他業과 달리 絕對的으로外上이업기는 萬無한事業이지만 우리安岳가티 甚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 우리도 時代의推移에따라 어느程度까지 可及的現金制限할것이며 萬若外上이잇다할지라도 一年一次의年末計算은廢止하고 月末計算이나 或은 一年數三次의 計算으로라도 變更치 아니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 寫眞은 尹相熙氏

醫師 柳志赫氏談

今般朝鮮日報가 地方發展을促進하는意味下에서 紹介號를 斷行한것은 衷心으로 敬意를表한다 本郡醫療界로보드라도 퍽發展이되여 現在戶數約二千戶에 病院이 七個所 其他醫療機關이 有하여 퍽便利한 곳이라고해도 過言이아니다 어느都市나 地方을 莫論하고 其地方의文化程度如何에依存된다 이런意味下에서 더욱더욱 醫療界를 發展시키기爲하여 醫師會를 最高醫療機關으로 組織하여가지고 相互討論하며 따라서는 僻地에至하기까지라도 民衆에게 衛生指導機關이 되여가면 얼마나 반가운일이겟는가 各病院 其他醫療關係者가 協力하지안코는 實現키困難한問題이니 만큼 同業者諸氏의協力을바라마지안는다

至誠堂醫院 車熙善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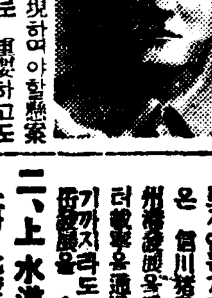
近頃 安岳의 全貌를 널리全朝鮮에 紹介케된 貴報의 計畫에 感謝함을 마지안는다 安岳이야말로 敎育上으로 其他文化上으로보아 其他都市에 比하야 遜色이업슴은 世人이 周知하는바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어서 中小敎育機關의擴充과 交通機關의完備 衛生施設의 充實等에 對하야 一層努力하여야되겟다

齒醫 李東煥氏談

齒科를 말하라면 京城世富蘭偲齒科部를말한다 同部에서 近十年間이나 經驗을 쌋코 約二個年前 安岳에서 開業하얏는데 齒科로서 權威를가지고잇다 氏의 談은 이러타 安岳人士는 全部가 다름 衛生은 比較的잘하고잇스나 口腔에對한 衛生觀念이업다 이것이 매우 遺感되는바이다 故로 一般이 人生의 貴寶인 齒를 貴重히녁임이 至當할것이다 ◇寫眞은 李東煥氏

安岳當面問題와 各界人士의抱負

郡守 魏鍾冀氏談



安岳의發展上 實現하여야할懸案이其中에도 第一로 重要하고도 한急先務가되어잇는問題를 들면

一、鐵道期成問題 地方發展이 交通發達如何에依存함은 말할必要도업다 그런데우리安岳을 볼때 아직 鐵道가 開通되지 못하야 一般交通의不便은 勿論하고 大遠面의 大農場을비롯하야 全郡內에미처 産出하는 一般穀物의 運搬이또한問題이다 그래서 鐵道期成會는 이에 支障을바더서 發展을 못하드가 오려히 信川에있어서 信川沙里院間이나 東上 海州鐵道을經由하야 末으로부터 安岳에이르러 安岳에이르기까지라도 어서속히되어야 安岳發展을 할수잇다

二、上水道問題 安岳은水土가 比較的不良하야 飲料水에 適當한곳이 不過二三處이다 이는 保健衛生上重大한 問題이다 時急히上水道를 施設해야만 安心될것이다 其他에도 急히 實現하여야할問題가 한두가지가아니나 爲先 時急한 問題로 前記鐵道와 上水道問題가 解決되는데따라 其他問題는 自然히 順應되어갈것이다 寫眞은 魏鍾冀氏

署長 木原氏談

木原署長이 安岳警察署로 新任한後 現下安岳에잇서 實行할 腹案을 實行할作定이다

一、善導施設 各關所在地에는 一圓式 組合을 하야서

二、鐵道問題促進

三、上水道問題促進

四、衛生을 徹底히 實行할作定

有志 田承根氏談

本郡은 全面積이 四十三方哩의 沃野로서 現在邑만으로도 二千百餘戶의 集團이되엇스며 事業의 殷盛이 實로括目의 狀態에잇다 그리고 大林 金農 加藤 同和 靑木의 諸農場이 大規模的施設을 하여잇슴으로 將來의 安岳에 幾十萬石의 米穀을 産出하고잇다 岳民의 住宅難은 西鮮第一等이다 經濟的實力은 西鮮第一等에잇서서 産物이 豐富하고 經濟力이 充分하나 오즉 輸出入의不均衡과 交通이 不便되여 活用의 方途가 적음은 安岳發展의 一大障害이 되엇기때문이엇다

一、鐵道敷設問題 (上略) 이는交通의不便을 늣기든나머지에 昭和八年八月頃에 鐵道期成會를 組織하고 一邊總督府及黃海道當局에 促成陳情을 하얏이잇서고 于今까지도 不眠不休의努力으로 繼續하야왓다 他線은 結搭하고 載寧安岳間 自動車에서 二十四人乘大車가 一日五回往復을하야도 乘客이 超過되며 增發車數가 定期以上일 적이만라 如此한 關係로 東系를 無效히사게되면 眞幸이라는 旅談까지들고잇다 이로보아도 安岳의 交通機關의 擴充이얼마나 時急한을알것이다

二、高普校問題(學校問題) 日本語講習所以外에는 實文化施設이 그때이다 우리安岳도 邑內에만 男女小學校가 五個所에 中等學校設置運動이 中等學校設置運動本部까지 設置되여 西鮮에는 아니라 半島文化에 先驅功獻이 만앗든 지禍이다 今日엔 엇더한가 大正十年頃에 다시 中學期成會를 發起하엿다가 失敗하엿고 그후數年을지내서 京城及日本內地留學生들의 發起으로 中學期成의소리가 써縣하엿다가 또다시失敗하여버렷다 그러다가 今年二月二十六日에 高等普通學校 期成會를 組織하엿다。 連續失敗한 安岳의 鬪士들은 陣容을 整齊하고 晝夜不分의活躍을한 結果 一個月未滿에 五十七萬圓의 巨額을 募集하여 노왓다 엇지壯擧가 아니며 우리二世를爲하야 光明한活路가 아닌것이냐 그럼에도不拘하고 寄附金許可手續問題로 不得已停滯되엿는데 學務當局은 公立高普를 設置하라는 主張이요 期成會側은 私立高普를 希望하는대에서 아즉折衝이 되지안는模樣이라한다 筆者는 公私立의 高普及實業校를 가리지아니하고 公私立中等學校를 卒業하고 어서서 衛戍에서 彷徨하고 잇는 學生을爲하야 하로밥을하고십다 相當한 學者여 靑상히 犧牲하는 어린靑少年을 爲하야 하로박비 打合하야 時急히實現할方策이 빨리一般의期待를 速히 解決하라

三、公普移轉問題 當初부터 學校位置가 不合理하게되것은 切實히 늣기는바이다 衛生上으로보아 人家集中地이니만큼 不潔한것이 한둘이아니요交通으로 보아서 校庭前面에 二等道路가 通過하고잇스니 人民의 來往과 自動車通行關係로兒童敎育에 莫大한 損害를 當하고잇지안는가 엇지그뿐이라 學校內容으로도 數年前부터 學級을 增設하여야 할터인데 敷地問題로 增築할餘地가 업시되야 入學難이 極甚한이때 例年數百名의 兒童을 收容치못하게되다 父兄諸氏여 奮起하라。 寫眞은 田承根氏

安岳各團體槪觀

宗敎와殖産團體를中心으로

安岳은 海西一帶의 富邑으로 活動하기에 最適地이다 그러나이와가튼 物質的土臺가 相當타고하는것은 客觀的임에不過하고 直接實行에 들어서는 豫想과는判異하다 安岳의 現今社會團體로는 殖産을主로한 組合이던지 不然이면 宗敎에 所屬된團體뿐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다 一時는 安岳靑年會란 간판을 붓치고 唯一한集團的機關으로 每日가티 事業을 繼續하고 一邊으로는 勞働共濟會니 消費組合이니 商業協會니 其他의 社會團體의 産婆役割을 하엿스나 그자최조차 보지못하게되엿다 現今에 이르러 安岳社會相은 아무리 合理的事業이라도 一致實同協力은 姑捨하고 利己만 崇尙하고 享樂的旂與을 日科로 삼는 靑年이만흔 寒心事이다 二千餘戶 一萬人以上이 居住하는 安岳에 靑年團體가 업고 宗敎團體에서 社會事業에 代身役割을 하게되어잇고 少年團體가잇슬뿐이다 其中 學友會 宗敎側으로는 男女基督靑年會 商業協會 記者團 蹴球團 體育會 少年斥候隊等이잇는데 安岳社會를 爲하야 萬丈氣焰을 吐하고잇는바 이제 個別的狀況을 紹介하기로하다

加藤農場

◇位置 平安南道大同江河口右岸의 要港鎭南浦對岸인 黃海道安岳郡西河、大杏、兩面의 入口 猪島一帶이다 總面積 約三千町步의 海面干潟地로써 將來有望한 곳이다

◇土質 本地는 主로大同江流에依하야 運搬되는 沃土의 沈積으로 形成된 干潟地가되어 잇는故로 土質이肥沃한곳으로써 稻作實이만코 保水力이强함으로

◇安岳學友會

安岳出生으로 初等學校卒業하고 外地에나가 留學하는學友들이 集合한 團體인데 이는 今年第十六回의 定期總會를 마친 歷史잇는 團體이다 會員自身들이 배움의자리 即學窓에 잇는이만큼 事業이 좀 삭膽分이잇다 放學時期에는 엇지할수업스나 夏季放學時에는 講演會 音樂會 講習會等 必要한 事業이라는것은하나도 빼지안코 길지안흔 放學期에 全力을 기우려 盡力하얏다 數年前까지는 男子뿐이 아니라 女子까지도 活躍이 비상하든데 近年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處女活動은 볼수업는듯한감 유감이다。 同時에 安岳學友會의 將來가 洋洋한 것을 誠心으로 祝賀하는바이다 委員長 李東憲

◇男子基督靑年會

大正十三年 九月頃 有志靑年金善亮氏의 發起로 組織되엇는데 滿十二年間 安岳社會에 功績잇는 事業을多數히 實行해온 長老敎派에 屬한 宗敎團體이엇스니 社會를爲하야 만흔努力을 하엿다 해마다夏期에는 高名한名士를 招聘하야 夏令會를 開催하야 常識普及또는 歷史講座外 講演會 音樂會等을 常例로하고 其他모든事業에 만흔盡力을헷다 그리고 滿七個年間이나 巨大한 物質的犧牲을하면서 無産兒童敎育機關인 安岳學院을 經營한것은 큰功獻이다 三百餘兒童의 文盲退治에 全力을 기우렷고 第四回에 一百餘名의 卒業生을 내엇다 그러한 功績잇는機關이나 許可問題로 閉校케만들엇슴은 安岳社會를爲하야 유감이나 現在會員이 八十餘名이고 滿十二年間勤勞한會長 金善亮氏는 그동안物質로도 相當한 犧牲을해가면서 유지한 萬자지하다 安岳YMCA의 將來는 더욱企期가크다 會長 金善亮 總務 裴敎權

◇女子基督靑年會

이도 大正十三年 男子靑年會와 가티 創立되어서 첫事業으로 楊山幼稚園을 創立經營케되엇다 安岳으로 처음의 幼稚園事業이엇고 社會的으로 讚愛를 맛게되어 女子만으로써 分分히 모흔 金錢으로 四百餘圓을 義捐해서 敎舍를사고 充實하게 經營하게되어 安岳敎育史上에 一大貢獻을 하엿다 中間擴張하게 되여 힘이못미처 男子들에게 事業을 넘기고 現今에는 아즉 着手한 事業이업슴은 遺憾이다 會員은 五十名이다 압흐로 社會事業에 着眼함을 바라는바이다

◇安岳少年斥候隊

大正十二年三月頃 安岳邑內 有志靑年들이 明倫講習所를 結作함과 同時에 敎員이든 李東憲 尹富淳 全武吉 鄭晚燮等의 職員이 發起하야 少年軍이란名目으로 世上에 탄생해다 一個年도 못되어서 一切責任을 靑年張熙文氏에게 一任하고 少年訓練諸般을 맛기어다 그리고 一九二六年에 이르러서는 時代에順應하야 少年斥候隊라고 改名하고 京城에잇는 朝鮮總聯盟에 加盟하야 少年運動에 主力하야 1日一善 준비等의 스로간으로 理解하고 安岳社會에서 艱難苦鬪를 해다 卽 少年心으로써 社會奉仕精神을 鼓舞시키고 三百餘名와 十二準律을實行하기에 全力을 기우렷다 少年明節인 『어린이날』을 첫번實行하야 今年까지 十回나 擧行하고 童話大會 童謠大會等 夏期에는 少年들의 캠핑, 짬보리等으로 心身을 健全케하고 社會的으로 깨우침도만허서 一般의 稱頌이 만흔중 누구나 다아는바이다 團員이 只今은 四十名인데 安岳뿐이쓰카우트에 단녀가는 靑少年이 近五百을 算하게되어잇다 昭和九年六月卅日에 創立十週年紀念과 同時에 勤續十週年된 隊長張熙文氏의 祝賀會를 擧行하얏다 過去十三年間도 實行되는 業績이 如實한데 아프로의 將來가 洋洋하여 一般의 企待가 크다

◇安岳商業協會

安岳의商業界는 매우不振한現狀에잇다 中小商人은 市日市場에만 따라단니면서 小店舖를 보게되엇다 店자리問題 여러가지를 중재할必要가 업서서 每市場에서는 자옴만으로 日常困難을 免할수업섯다 마침靑年會派의 비숫하게 商業協會란 간판아래 大正八年九月에 創立되여 靑年會幹部가 參任되고 商界에對하여 問題는 무엇이나 全部를 맛터서 제재하고 奬勵도해슴으로 今日까지 市場店자리니 或은問題가 發生되어도 協議會에서 중재하면 아무런問題가업시 解決되든 每年端午節에는 學生市民大運動會를 開催하얏고 적지안흔 貢獻을 남기엇다 모름지기 아프로 잇어 그腹案의 實演을 꿈구고 잇는모양이다 會長 許弘謨

◇勤勞貯蓄組合

安岳邑으로부터 猪島行道路로 約十七八町가면 板七里란 邑에 좀떨러진 洞里가잇다 外貌로도 양전해보이지만 金融組合의 模範農村이되어잇고 實踐에 努力하는 洞里이다 勤勞하는 洞民들 끼리 貯蓄組合을 만들어서 成績이 良好할뿐더러 將來가洋洋하다 하면서 京城高工을卒業하고 農村開發에 全力을 기우린 宋德普氏가 犧牲的 努力을 거듭해서 一大事業을 일우엇다 組合長 宋德普

◇椒井殖農會

西河面椒井里下文洞에 有志張鎮容氏의 指導로 九年前 春事에 洞民廿五人을 모하가지고 殖農會를 組織하고 張氏의 土地一百九十九斗落을 내어 共同耕作을식히고 共同作業의 精神을 더하야주는一便 農民들에게 低利로 貸與되여 活動하는데 그나마 九戶는 떠러지고 十六家戶가繼續하야 至今은 七八千圓의巨大한資本金을 만들엇다 이러한 功績만흔 張氏에 對하야 感謝를 마지안흐면서 不遠將來에 理想鄕은 問題도되지 안는다는데 筆者는 衷心으로비노니 其會가 더욱農民을爲하야 活躍하기를!! 會長 張鎬谷

安岳體育會와 蹴球團

每年夏季의 行事로되어잇는 黃海蹴球聯盟戰이잇서 他道에업는 貴한 스포츠 集團이잇는데 創始에는 各郡體育會의 聯合試合을 비롯하야 大會에까지 이른것인데 매우 자미잇섯다 安岳體育會는 有名無實하고 그役割을 蹴球團이 代身行事라한다 團員이 二十餘名으로서 每年二次의 安岳蹴球大會를 開催하고 黃海聯盟戰에出戰도하고 今年에는 安岳體育會 代身으로 安岳서 主催를해서 盛況을 이루엇다 團員모두가 有産階級이여서 社會의 寄附가 적고 自作自給으로 事業에 發力한다 相當한 强敵을 招聘해서 試合을해서 一般에게도 짬짬이 스포츠精神을 고취한다 團長 金元亮

安岳樂友會

昭和五年四月頃YMCA音樂部와 연락을 取하는 데에서 張熙文氏가 發起하야 創立하얏다 當時에는音樂을 普及식히기爲하야 勞力을 헷는데 자주 音樂會를 開催하고 또는 講習會를 開催하야 靑年들이 音樂을 研究하얏는데 中間事情으로서 至今은 有名無實에 빠저잇는데 機會를보아 다시금 떨처나올것을 計畫中이라한다 會長 張熙文

◇安岳貯蓄組合

이는 小商人 資金融通을 主로하야 最低利로 貸金業을하는데 一株金每日二十錢式을 積立한다 特長은 一人前二十株以上所持할수업다 小商人에게 四錢利息으로주다 相當한 進展을보는데 十年滿期로서 아즉것四年이 남어잇다 滿期後에 商人을爲한 무슨機關을 만들고 말것인가?不然이면 株主들이 分配할것인가?社會施設이 신통치못한 이곳에 좀 犧牲함이 엇덜것인지 一般의 注目하는바이다 組合長 李紹馥

株式會社 楊山商會

庚申八月廿一日에 安岳有志三十餘名의 集體的모임으로써 消費組合形式으로 安岳의 商權을 獲得하고 經濟問題를 解決한다는 目的으로 창시한것이 楊山商會組織된것이다 安岳郡九個面은勿論 最近에잇는 信川郡山川 龍月 用診面等의 三個面을 區域에 編入하야 株主를 募集케되엇스나 一株金十圓을 四回拂込하고 一回拂만 모아서 同年十二月二日에 創業 里에서 開店하얏다 株數는四千株 株主는 約九百餘名 資金은約二萬圓가량(二回拂込)이 되어잇다 至今은 그리큰金額이 못되나 只今부터 十七八年前인 庚申年에는 農村都市地帶에 잇서서 그리 적은資金도 아니엇다 營業에 잇서서는 內外國産物輸移出入貿易及 日用雜貨 絹綢布木陶磁器 肥料農具等의 百貨店을만들엇는데 當時부터 當任해든役員들의 必死的努力은 期必코長足의勢로 進展을보게되어 現今一萬五千圓時價의 雄大한 建物은 安岳第一心臟地帶에 二層半洋式店舖를 建立키로되고 總資本金이 六萬餘圓以上이 되엇다 이것이 安岳社會에 한갓特殊한 團體이다 故로 楊山商會만은 安岳社會의 자랑인同時에 우리손으로된 機關이 商界의 覇權을 掌握케되어잇다는것은 實로 痛快한바그것이다 其中店員은 時代에 順應코저 一時는 女店員도 두엇고 別別商業研究가 만헛는데 그중 書記蔡東舜氏는 創始부터 十七年이된 今日까지 勤續勤務를 하는데 참으로 楊山商會의 守護神이다 實로 楊山商會의 現職員의 努力은 實로큰同時에 楊山商會의 前途가 얼마나 有望한가 우리는 雙手를 擧하야 祝福한다 楊山商會會長 田承根 副會長 李紹馥 監査役 金鎭寬 許弘謨 理事長 金應石外 十九名 常務幹事 鄭宗福 書記 蔡東秀 金鳳郁

◇同和農場

大遠面이陽里干拓地를 昭和四年에 鎭南浦 日本內地人三人이 合資로 總面積一百七十町步를開墾하고 昭和七年度부터 多少의 所得이 잇는데 昨年에는 二千八百石이 收穫되고 小作人은五十戶로써 一戶小作地는 二町五段이며 一戶年經費는 一百三十圓假量이엇다 이곳도 從前事件은 만히생겻스나 多少安定되모양이다

敎育機關擴充과 宗敎界의振作策

『高普完成까지 熱誠의繼續을』 丁南淵氏談

安岳이라면 安岳高普를 聯想하리만큼 最近安岳으로서의 重大問題는 高普設立運動이다 他地方으로旅行할때에 安岳에잇다면 第一먼저뭇는말이 安岳高普設立運動의그後消息이다 이것을보면 他地方에서도 安岳高普에 얼마나 關心을가지고 잇는것을 알수잇다 一個月에 六十萬圓巨金이 모혓다는것은 朝鮮文化史上에 前無한 好成績이다 누구나 豫想하지못하엿던 好成績이다 이와가티 놀날만한 成績을 내인것은 郡民이 얼마나 平素에 高普設立을 熱望하고 잇섯든것을 可히 짐작할수 잇는바이다 속담에 民心이 天心이라고 이런케 郡民이 熱望하는것을보면 高普運動은 一時偶發的事實이 아니오 天心에 依한 文化運動의前期的事實이라고 생각한다 勿論有終의美를 確信하는바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란 時間이길면解弛해지기 쉬운것이니 언제나입고 잇는옷고름도 다시금 다시금 곳처매는것과가티 우리의高普設立도 開校하는날까지 처음의 熱을 그대로 繼續하야 安岳郡民의 敎育百年大計를 確立하도록 努力하여야겟다 ◇寫眞 丁南淵氏

牧師 丁一善氏談

安岳은 字意대로 安岳이지라 自古로 兵亂이업섯고 凶年이적으며 亂類가업섯고 致産에熱重하엿슴으로 富力이 道內에第一位를 占領한것은 모든活動으로 보와서 世人이 共知하는바이며 이아프로 敎育으로나 實業으로나 有望한것은 어찌나感謝한지 오 그러나 其反面으로 危機가 潛在한것은 道德을崇高하는 宗敎心이 薄弱하여 未來의主人公靑少年이奢侈에誘惑되고 放浪에흘러가지안을가? 念慮가 업지안어서——나의平常祈禱中 安岳社會에서 篤實한信仰家가만히 生起하야 싣시사고될며——期會가잇는대로 傳道할뿐……

羅燦奎氏談

安岳天道敎에서는 三十餘年來 本敎의眞理敎義를 布化宣傳뿐만 아니라 育英事業에도 數千圓을 消費하여가면서 養成講習所를設立하고 初等科와 高等科를設立하고 多數한英才를 養成하엿스며 現今에는自體內紛糾로因하야 三派로分立이되엿는데 沙里院中央總部派가 數百餘戶의 千餘名信徒가有하고 新派가十餘戶가잇고 中央敎會派가 二十餘戶가잇는中이오 沙里院中央總部派로論하면 孫義菴聖師의 遺言와制度를遵守하면서 數百餘戶의 精神이一致團結이되여가지고 하면으로 守心正氣로써 性心修養에全力하고 또한편으로는仁義를實踐하기로伏心을하게되는故로 敎役者들이 全心努力을하는中이다

祝 安岳地方紹介版

安岳郡農會

安岳郡廳

安岳郡銀紅面長 李錡洙

安岳邑內 昌信醫院 公醫 宋榮璨

安岳邑內萬和醫院 尹相熙

安岳郡安岳面長

安岳邑內 金潤明

大杏面長

新安材木商會

安岳郡大遠面長 李漢郁

安岳郡龍順面長 張斗燮

西河面長 任載爀

安岳面靑三里 安岳釀酒合名會社

好生堂醫院 尹元曦

安岳醫院 車應斗

安岳司法書士一同 金孝根 洪▢▢ 郭弘涉 朴▢▢ 李▢球 朴▢▢ 宋▢根 ▢▢▢

安岳郡龍門面長

安岳郡安谷面長

安岳郡文山面長

安岳邑內 三成釀造合名會社

安岳郡安岳面小川里 楊山幼稚園

安岳邑內 ▢石里 (製粉一般 玄米精米) 安岳製粉工場 劉世華 劉明燁

설사하는사람이 집안에잇슬때

피차에서로주의하자

요사히는 장마에 휘몰크리라며-려가지 병이발생하지만 그중에도 리중(痢)과 설사가 만히발생하는것입니다 설사환자가발생할때는 될수잇는대로 의사의진찰을 속히밧는것이 조흐나 진찰을 바들수 업게된 형편이면 병든사람 자신은 자조 손을씻고 할지면가튼것으로 소독하는것이조흡니다 그리고 변소에는 석회가루를뿌리던지 숫가튼것을 너허서 파리가 쓸지못하도록하며 주부되는분이나 밥짓는사람이 걸리거던 음식을다른사람이 짓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더욱히 신열이나고 설사도수가잣슬때는 병자는 따로방을정하야 머리와 가슴을 어름베개를 만드러언저서 식히고 배에는더운수건을 번가려가며 뎁혀서배를더웁게하는것이 조흡니다 락막혀서 설사가나지안코 따분하면서 배가끌키고하거던 피마자기름을 십오그람내지삼십그람을 마시고 속히 대변이나오도록하는것이조흡니다 간호하는사람도 여러사람이되는대로 솔이하지말고 일정하게지정하며 어린아이들은 절대로병자의근처에못가게하는것이조흡니다 병실에드러갓다가나오는사람은 누구나몰론하고 손을 소독하도록 주의하며 환자의쓰든용기그릇과 설사한사람의그릇은 구별하야 쓰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환자가쓰든의복과이불가튼것은 반드시 소독한다음에 세탁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소독할때 쓰는약은 「크레졸」을 삼십삼배의물에타서 쓰도록하십시요

향수이야기

장미꼿 오만송이에서 겨우삼그람의향료

여간사람이 못쓸 진짜、정짜

香水漫談

냄새라는것은 언제나 그가가전한가지냄새만 가지고잇는것이아니라 향치거나 엷어지거나해서 전혀다른냄새처럼 냄새나는것입니다 그리고 조흔냄새로부터 고약스런냄새에이르기까지 향료(香料)안되는것이업습니다 어느시대에는 고약한냄새라고하든것이 이시대에 이르러 사랑밧고 위엽밧는수도잇습니다 향료가운데는 원래부터 조흔냄새가 나는것과 원래는 고약스런 악취가 나는것이 그것을 물이나 알콜에 엷게할 때 비로소 조흔냄새로 변하는것이잇습니다 「스카톨」과가튼 향수원료는 처음마트면 아주 구린내가대단합니다 그러치만 그것을 몃십배가량의 물이나 알콜가튼데 엷게하면 조흔 냄새나는 향수가되고맙니다 향수라고해서 현재에 우리네가 쓰고잇는 조흔냄새는 모두가 이런것인즉 실로 무지장으로 만들어낼수잇는것이라 볼수잇습니다

×

향료를 크게구별하면 동물성향료(動物性香料) 식물성향료(植物性香料) 인공향료(人工香料)세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성의것에는 사향록(麝香鹿) 령묘(靈猫) 룡연향(龍涎香)등이 잇습니다 룡연향이란것은 말향경(抹香鯨)이란 고래배속에 기속에 잇는것이라하지만 정말로 그런것인지 아닌지 확실치안코 물우에 떠다닌다는 매우 신비적인것입니다 이런한동물들에게서 이냄새가 무슨뜻을 가지고잇느냐하면 이성을 끄는 수단으로 몸에서 나오는것입니다 꼬치 봉접을 끌기위하야 향내를 피우드시 동식물의 세계에서도 냄새는 생의 근본문제에 저촉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잇습니다

다 공기를 깨끗이 하고 사람의마음을 진정식히는 향료는 예날부터 종교상에서도위엄을바터 사치품이라고 할수업는 정신적 역할도하고잇습니다

식물성향수의 원료로서 제일 손에들기쉬운것은 박하입니다 그리고 대만(臺灣)의장뇌(樟腦)도 향수의원료가됩니다 그외로 향수를 취하는꼬츠로 말한다면 수선화、월하향、씨트로네라-르、백합、히아신스、계피유、장미、레몬、오렌지등입니다

꼿에서 향수를 짜는데는침출바법(浸出方法)을 취합니다 장미꼿은 「불가리아」에서피는것이 제일조코 그꼿은 향수의 발전지라고 일컷습니다 냄새는 「에-텔」이니까 지방(脂肪)에다가「에-텔」을 옴깁니다 즉 도야지기름에 꼿닙파리를 잠겨하로밤을 그대로두면 「에-텔」이 지방으로옴겨부터 버리니까 도야지기름은 꼿의향수를빼라 냄새가참조케납니다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알콜」을붓습니다 그러면에-델은 알콜에풀리고지방과는 분리되어 버립니다이러케해서 뫼것이 진짜향료、즉향료의 엣센스입니다 이엣센스는 실로 오만개의 장미꼿에서 겨우삼그람바게 못뽑으니 갑시비쌀것은 당연하지요

×

그러나 이러케 훌륭한향료는갑시너무비쌀뿐만 아니라냄새가 날라가 버리기쉬우니까 얼른 날라가지안케 보류제(保留劑)를 너치 안허서는 안됩니다 다른냄새를가저다가 눌러서는 안되니까 가튼것으로 보류합니다 그럼으로 여간천연향료를 써서는 「불가리아」의를 고에서피는 장미의 냄새를 고대로넬수는업습니다 그저 그럼사한 냄새의 정도이지요

천연의장미의 엣센스를 쓰지안코 다른향료를두서너가지를합처서장미의 냄새처럼냄새나게하는경우가 잇습니다 이것을 「스케취」한다고말합니다 불란서파리-는 향수의 고장인만큼 각제조상이 향수맨드는 방법은 제각금비밀에 부처두고 보류제에 관한것도 여간 어려운문제가 되어잇지안습니다

×

그다음에는 향수를쓰실때 주의할것을 말씀 드리겟습니다 향수는 공기에저촉되면 산화가되어분해 작용을 이르켜송진처럼 되기쉬운속 병마개는 반드시 꼭꼭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일광에 쪼여서는 안됩니다 너무온도가 놉거나 나진데두어도 하야케 탁해지는 경우가잇습니다

요근래 신기한것을 조와하는 며성들이 향수를 귀바쿠속에

애기들이 조르는 이야기되푸리

—이래서아는것이는다

어른들끼리 무슨이야기를 재미잇게하면 아이들은 밧긋이어른려미테와서안저 정신업시듯고잇다가 이야기가끗나면 다시이야기를 뒤푸리하여달라고 조르든것입니다

이러할때는 대개어른들이화를 내여서 「저리로가거라!」하야 실증을내며 꾸중을해치우는것이 또한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할때는 어린아이를 꾸짓지말어야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어린이라는것은원래 무엇이던지 밥복과 뒤푸리를 조화하는본성을 가젓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는것마다 새로운 세계요 호기심을 자아내는 신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던지 새로히 알고 해득하랴고 쓰는것이며 그림책과 이야기속에서 그들을유한 신비의세계를 스사로꾸며서 처음듯는이야기를 다시되도록하는것은 어른들은 한번에이해해버리고 상상해버려서 별로신롱치 안흔평범한것으로 치워버리나 그들어린이에게는 되푸리되푸리하는동안에 자긔의지식을 더엇고잇식은기퍼지는까닭입니다 동물원이나 백화점에 어린아이를 다리고갓다가 그뒤에 다시가자고졸르며 못견듸게하는것도 모다가 이러한어린이의본성에서 나온것이니 크게그른것이 아니고 못쓸이야기가아니거든 되푸리하여 들려주고다려다주는것도 조흡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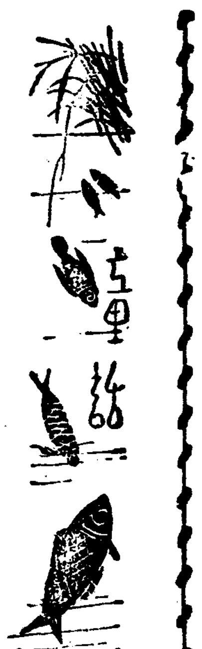
〃편지〃

누나야、편지를쓴다。
뚤억에살구나무 올나
갓드니
웃수머리 둥구나무、
죄-그만케 보엿다。
누나가 타고간 붉은가
마는
둥구나무샷드로 도라
갓지、
누나야、노-라케익은
살구도 따먹지안코
한나절 그리워햇다。

(글쓴사람 오장환)

토끼의방울 (二)

李奎燁



동주는 하도이상해서

「그저아무케나 가지고잇나」

「네 필요한때 너무요심은부리지말고 적당하게만 불으면 겨정업습니다 이것은 누님과 가튼 고흔 마음씨를 가지고잇는사람만 되지 어느사람이든지 절대 안됩니다」

「응 그럼 고맙다 그까짓입에 이러케조흔 보물을주니 무엇으로 은혜를갑는다말이냐……」

「그럼 저는이젠다커서 나혼자니가서 살겟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도 엇재누님을잇겟습니까 그리고 또한말슴드릴것은 뭐이 나오라하기전에 반다시 토끼방울을 토끼방울 하고세번 불르다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만불으십쇼 그럼누님! 부디부디 평안히 계십쇼」하고 동주가 채대답도 하기전에 어듸론지 연기가티 사라저버리고 말엇습니다 동주는이상도하다 생각하며 한번시험해보기로 햇습니다 동주는좀 몸이약하고 감금병을 알음으로 튼튼해지려고 생각하고 방울을보고

「토끼방울 토끼방울! 제발저의 몸이 튼튼해지게해주십시요」말이 끗나자마자 공중에서 휘―하는소리가 나더니 병이한개 동주아페 떠러저잇지 안켓습니까 동주는 꼿집어보니까 갓종회에는 이약은 세번에 잡수십쇼 그럼소원대로 아주튼튼해지리다」라고 써잇섯습니다 그날세번에 다먹고나니 아!이상도해라 동주는 아주튼튼하게되고 전보다며어엽버졋습니다 동주는 참 이상한 방울이로구나 하고 잘보관해 것습니다 오늘도동주는 버섯을 뜨더다가팔고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가에한 불상한거지아이가 안저서지나가는사람사람에게 구걸을 햇습니다 그러나하나가리못본척하고 지나가고지나가는 것이엿습니다

마침 이모양을본 동주는주머니에서 버섯판돈을 거지아이에게 내주며

「이얼마 안되는돈이나마 밥이라도 사먹어라」하고 말을 햇습니다 거지아이는 무수히 절을하고 입에침이 마르도록 치사를하며「아!아가씨처는 여긔이러케잇는자가 벌서 몃달이됏스나 한번도 아가씨가튼신분은 본적이업습니다 부듸 안녕히게십시요」

하고 거지아이는 저-멀리으로거러갓습니다 바로 이때엿습니다 도적놈하나가동주가가지고잇든 방울이든든과지갑을 채어가지고 도망질을칫습니다 동주는 뭐보다도 그방울을 끼것이 여간 아깝고 분하지안햇습니다 쪼차가려하니 벌서숩풀가리달려갓고 도저히힘으론 도저히 안됨으로「토끼님-토끼님 저방울을 차저 주십쇼」하자마자 도적놈은 길바닥에 나가잡바젓습니다 그리자마자 방울이 공중으로 날라서 동주 아페 떠러젓습니다

동주는 방울을 차젓스나 돈이한푼도업슴으로「토끼방울이라고세번 불으고돈을 아주조금만 주십쇼」햇습니다 그리자 철컥하는소리와 함께 동주아페는 돈이갓득 들은 주머니가 나타낫습니다 끈을 클르고속을보니 아-번적 번적 하는 금전이 갓득갓득 차잇지안켓습니까 또 조히가 하나―그래펴처보니까 거긔에는 이런말이써잇섯습니다

「누님 나의잇지못할 누님 누님은 조곰만 동감하라 하셧지요 신령님의 말삼대로 만이돈을 보내오니 이것을 바드시고 내일부터는 버섯따다 파는것은 고만두시고 공부를 하십쇼 그리하야장래에 아주이름난 사람이 되여주십쇼」

동주는 그이튼날부터 버섯파는것을 고만두고 그돈을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를 햇습니다 후에 아주유명한사람이되엿습니다 (끗)

連載野談 布衣記 (一〇)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신의잇는련애 (三六)

며저 제후소저가 못도적의방이되어잇는중이 특히 자칫 잘못하면 필경 그두목도적의 칼날아래 목숨을 빼기고말 그의급한편에 별안간 큰소리 한번으로 그도적들을 물리치고 비호가티 달려오든 장정은 다르사람이 아니라 김천이엿다。

원래김천은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떠난뒤에 리교평의 동정을보아 만일 제후소저의 뒤를쫏든 경우에는 죽엄을 무릅쓰고 그쫏는것을 막으려고 뒤에 떠러저잇게 되엿든것이다。

그런데 날이 밝도록 아무런 동정이 업스매

「오옹 리교평이 어제밤에 취한술이 아직도 깨지못한것이로구나 허허。리교평이 술을 깨는때는 이세상에 큰 원수가 술인것을 생각할것이다。원래 술이란 웃음은 리익되는것보담 해되는것이 만흔것이。어쨋든지 내수고를 업게하니 매우 고마운일。」

하고 김천은 리교평이가 어제밤에 늣도록 질탕히 놀고 몸시 취하얏든 독이 풀리지아니하야 제후소저가 달어난것도모르는것을 짐작하고 곳 제후소저의 가든길로 그뒤를 쪼처가게되엇다。

이에 김천이 두주먹을 불끈쥐고 줄달음질을 처서 무진령을 넘어선뒤 비롯오 거름을 멈추고 백운국선과 제후소저의 간자최를 살펴서 압헤보히는 큰길로는 물론 가지아니하얏슬것을 짐작하나 좌우에 큰산이들러잇스니 산길로 들어섯다면어느산길로 들어섯는지 알길이업섯다。

그래서 김천은 답답한 생각으로서 고개를 이리 두르고、저리 두르다가 외편산언덕의 풀이슬이 모두 떨어진것을보고

「오옹 풀에이슬이 떠러진것은 분명히 인마가、지낸흔적。아마도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이산으로 들어선것。」

하고 다시 두주먹을 쥐고달음질을 처서 그산속으로 들어서게 되엿다。

그런데 얼마를 들어가지 아니하야 여러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와자직끌 틀리엿다。

「허허。이런 깁흔 산중에 사람소리가 저러케 틀리는것은 분명 도적의때。과연 도적의때이면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큰화를 면치못하얏슬것。」

하고 김천은 거름을 떠빨리하야 그 떠드는곳을 향하고 달려갓섀 비록 멀리서 보아도 여러사람이 한데모힌것은 분명 쌈을하는것이오 그엽헤 얼뜻 이상한 복색을 차린 녀자가 보이는것은 분명 제후소저로 짐작하고 뛰여가면서 그와가티 먼저 큰소리를 질으고 가슴에 품엇든 비수를 꺼내어 내돌럿다。

그런데 김천이 크게 소리를 질으자 두목도적이 돌아다보고 크게 놀내여 달아나기는 힘이 천하장사요 또는 칼을 귀신가티 잘쓰든 김천이것을 알어본 까닭이니 일즉 김천이 자객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횡행할때에 그두목도적이 김천을 의히 본적이 잇섯든 까닭이엇다。

이에 김천이 빨리 제후소저압헤가 위선 그록긴것을 급히 풀르고땅에 업드려

「소저!。소저!。이것이 어인변이신고。이욕을 당하시는것은 이놈이 늣게온죄。대관절 국선서방님은 어데게신가요。」

하고 목을 노와 통곡하며 그놉나운일을 당한중에도 백운국선이 보이지아니하는것을 궁금히 생각하야 할말을 다못하고 백운국선의 안부를 물엇다。

어때 제후소저는 도적을 쫏고 달려오는 사람이 떠무서운 도적으로만 알고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며 함하여시 백운국선의 눈먼형용을 가슴에 그려 깁히 품고 죽음쾌를 생각하다가 뜻밧게 그사람이 다려난도적보담 떠무서운 도적이아니라 김천이란말을 듯고 도리여 더놀내여 숙엿든 고개를 번쩍들고

「아야。과연 김천이로군。고마운일、고마운일。그러나 백운국선은 나무에 매달리신지。벌서 오래이니 필경 절명이 되섯슬것。이몸을 이자리에서 업는죽여 백운국선과 함께이산에 무더주오。그대의 그은혜는 뒷세상에 가서 갑흘터이니。」

하면서 제후소저가 목을 노와 통곡한다。

「아이고!그것이무슨말슴?。」

하고 김천도 목메인 소리로써 되물으며 제후소저를 빨리 맘에 레우고 백운국선을 차저간다。

「嗚오다! 백운국선은 벌서 그진、때진되여 얼골과 몸빗치 팔앗코 차늘한채로 축느러젓다。

秋風일때

誕生가까운幼兒는 離乳의注意를

熟達한離乳의方法과健全發育法

가을은離乳의好適

乳兒가生後七八個月以上이되면母乳만으로서는 完全한 發育을할수가업습니다、그래서 乳兒는母乳外에 다른食物을 보면먹고십허하고 齒牙의 發生도自然의한現象입니다、그래서 齒牙가나면徐徐히 離乳의 準備를하고 誕生이 가까운乳兒로 健康하기만하면 完全히 離乳하여도 조흠니다、

그離乳에는 가을이 가장適當합니다、

離乳는徐徐히

母乳에서 突然히 食物로變하면 胃腸이傷하는故로 最初에는食餌의急激한 變化를 避하기爲하야 極히엷은 重湯을 給乳하기 前에 一五式一日에 一回를주어서 이것으로 別異常이 업스면 漸漸母乳의 回數를주리고重湯이나죽으로 徐徐히變하면極히自然스럽게離乳하게됩니다、

勿論重湯이나죽만으로는榮養이不足하므로 두부 감자 果汁시근치 半熟한卵黃등을副食物로써주고間食으로서비스켓웨하-스와가튼 消化하기쉬운菓子를때때로맥입니다、

배탈을防止함에는

食餌를調節하야주면서 離乳하는것은 어린애가健康하다면極容易한일이나 腸胃가弱한애라면泄瀉가든것으로해서意外로苦痛을밧습니다、그래서注意深深한家庭에서는 [illegible]「錠劑わかもと」를가루를만드러離乳期乳兒에게먹이지만이藥에는榮養하여진諸器官의細胞機能을活潑하고弱한胃腸도튼튼하게하야 消化吸收를돕는作用이잇스므로 배탈이나기쉬운離乳期의乳兒에게給與하기에 가장適當한것입니다

發育을促進

배탈도나지안코 離乳는하엿스나 그後發育이잘進捗되지안는 乳兒가적지안습니다

東大醫學部의 乳兒發育狀況의調査를보면 農村에서낫슬때는 都會小兒보다 體重身長胸圍가優秀하지만 成長함에따라서都會보다 떠러집니다―數字的으로 表示하면

(括弧內는都會의乳兒)

	體重(瓩) 男	體重(瓩) 女	身長(糎) 男	身長(糎) 女
初生兒	3.15	3.01	51.1	42.3
	(3.06)	(2.96)	(49.4)	(48.5)
滿三月	5.33	5.13	58.7	57.1
	(5.97)	(5.51)	(60.3)	(58.9)
滿六月	7.16	6.45	65.4	63.6
	(7.67)	(7.07)	(65.5)	(64.2)
滿十月	7.76	7.46	69.2	68.8
	(8.70)	(8.21)	(70.2)	(69.5)
滿一年	8.14	8.05	71.6	71.4
	(9.17)	(8.69)	(73.1)	(72.0)

이原因은主로서 榮養에關係가잇스므로 多幸히「錠劑わかもと」에는乳幼兒의弱한胃腸에도容易히吸收할수잇는狀態로各種의 榮養素가豐富히包含되여잇고特히發育을促進하야 體重을增加하는効果가잇스며리진、히스치진等의榮養素도 包含되여잇스므로이것을離乳後에도 繼續하야服用식히면 배탈도나지안흘뿐만아니라離乳後의發育도 非常히조회집니다。

母乳를잘나게 하는食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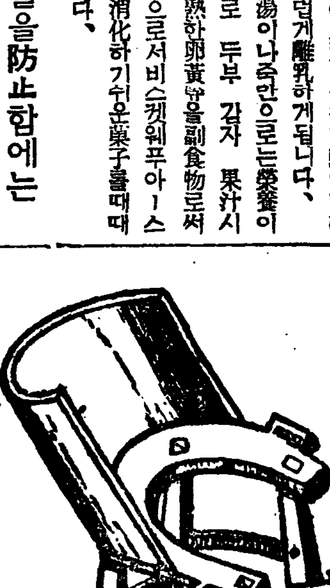
예로부터 乳不足에는 잉어를만든잔국이 조타고하지만이것은오직그것에만 限하지안흠으로滋養이豊富하고맛잇는 飮食物로消化가잘되면 身體의榮養이增加하고母乳도잘납니다 따라서우동용어의 甘藷煮牛乳 脂肪等豐富한肉類等비타민 A에豐富한食物이有効합니다。

「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여도母乳가나지안는다고 異常하게생각하는 분도잇지만「錠劑わかもと」의成分中에는 이비타민A는勿論 그他多種類의 榮養素가多量으로 包含되여잇서서 全身의榮養을 昂進식히므로 母乳의分泌가旺盛해지는것은 當然한일입니다

當朔이가까운婦人의 浮腫의治療

當朔이가까워도 아직浮腫과便秘의治療를하지아니하고 放任하여두면 不幸을招來하는일이잇습니다

어떤大學統計에依하면 解産으로生命을빼앗기는 母親의三分一은浮腫을이르키는病이 原因이되여잇고 난지一週日도되기前에죽는幼兒의過半數는 浮腫이잇는母親에게서解産되여다고합니다、



中世紀에使用 되分娩椅子

이러한무서운 姙娠中의浮腫은 大概

胎兒의病과 脚氣로생기는것입니다、姙娠中에腎臟을害하는분이만흔것은 母體가胎兒와 自己와의二人分의老廢物을排外에 排出하지아니하면아니되기때문에 腎臟에非常한負擔을加하는까닭입니다

이러한浮腫이 全身에미치게되면頭痛과 惡心嘔吐를이르키여流産死産의原因이되거나 分娩時에突然痙攣을 이르키어母子의生命을빼앗는子癎을이르키게됩니다

腎臟에도浮腫이나타나지만이것은胎兒의成長과母體의 新陳代謝作用에 依하야 비타민B가激烈히 消耗되고體內에이것이 缺乏한까닭으로이러나는故로 解産時에心臟麻痺로生命을잃는분도만코 多幸히이危險을免하드래도 生兒는乳兒脚氣가母體는所謂血脚氣로 허리를잡수가업습니다

이러한무서운浮腫에對한 豫防及治療藥으로서는「錠劑わかもと」와가튼것이가장 適當하다고생각합니다

「錠劑わかもと」는 [illegible] 作用이라고해서 [illegible]

脚氣와腎臟全體의活動을機能的으로 正常하게回復식히는것입니다

또脚氣에有効한 비타민B가豐富히包含되여잇스므로 이것을服用하면腎臟炎과 脚氣의治癒와 同時에浮腫도消退하고 便通도正常하게됩니다

「錠劑わかもと」가도조흔點은 그런한治療効果가 잇슬뿐만아니라칼시움、燐、鐵等의生體의

胃腸에特히만히必要로하는榮養素도包含되여잇습니다

그러므로姙娠中에 이것을服用한婦人에게서出生한幼兒는 健康한便이만타고합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財團法人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 一日四五錢에該當하는廉價로 發賣되여잇습니다。그러나近日그廉價를利用하야効果가疑心스러운 類似品을推賞하는藥店도잇사오니 注意하여주십시요

療養實話

產後의脚氣로 授乳도一時中止하엿스나

(滿洲) 大野なみ江

▼……저는 昭和七年七月의解産을하엿습니다、病院에서 十五日째되는날退院하야 一個月假量지나니까다리가무겁고 밤에도잠수업스므로病院에가서 診察을바드니까 脚氣로서授乳하여서는아니되다 고하므로만히나는 젓을다버리엿습니다 그러든中에 兄님께서오셧기에 그말을하엿드니 그러타면「錠劑わかもと」가조흐데母乳를 그대로먹여도 조타고해서 곳服用하기始作하엿습니다

▼……다리가무거운것도곳이저 버리게되엿스므로 그後繼續해서 먹이고잇습니다 그애가今年네살이되는데 大端히健康합니다 昭和九年여름에 滋賀縣하야 內地에서「錠劑わかもと」一瓶을가저왓는데 그것을 다먹어업서젓스므로 ○○을가엿스나「錠劑わかもと」가 조흔것가태서 그것을愛用하고잇습니다

敎育掛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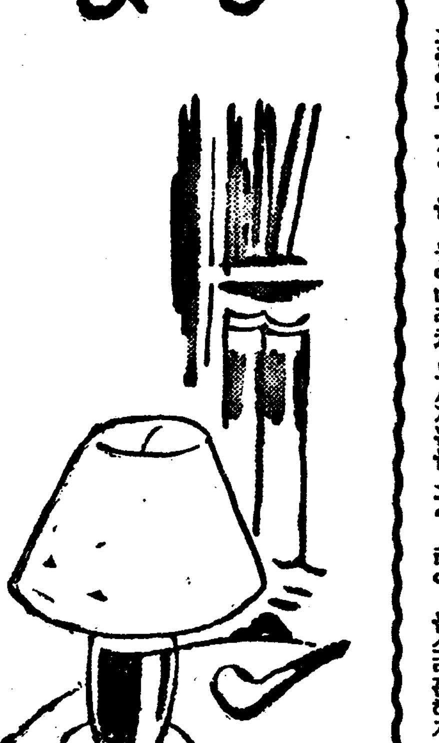
引換券を御活用下さい

愛兒と小學校の爲めに

『わかもと』에添付한「掛圖寄贈引換券」을 小學校에寄附하여주십시요 券으로寄附한小學校에는 훌륭한敎育掛圖를寄贈합니다。

東京芝公園十一號地 敎育資料會

學藝



季節의除隊 ⑦

避暑地款告

夢遊金剛山 (下)

許然

三日間 內金剛에 잇는 동안 韓君과 가리 或 일 흡단 젊이나 하며 華峯을 차저도가고 노픈 峰에 올라도 보고 기픈 골작이에 드러가도 보앗다 폭포나 물이오 나무요 이오 물소리다 그중에도 가장 내맘을 즐겁게 또 상쾌하게 하는것은 물이오 물소리다 물을따라 올려도 보앗고 물을따라 내려도 보앗스며 물소리를듯노라 내ㅣ가에 정신업시 안저도 보앗다 물우에 미끄러지는물 물에서 물로뛰여나리는물 흘구멍으로 기어나는물 물에걸려너머지는물 물에마주처 부서지는물 그모양이 다ㅣ달르고 그소리가 다ㅣ달라 緩急에 疾徐에 高低長短에 雄壯 섬세에 다ㅣ各히 特色이잇다 아마도 夏金剛의 特色은 물에잇고 물소리에 잇다고 할것이다。萬瀑洞 드러가니 물잇는 물소리란 물마다 삭인듯자 물에 씻겨 희미코나 왓다간 발자국이야 어데남다 하리오

毘盧峰을 올라갈생각에 長安寺압개천 아까운물소리를 두고 우리는 內金剛을 하직하얏다。그러나 磨訶衍을 지나 毘盧峰垂直線下에 서기까지는 물소리가 끈허지지 안엇다 금사다리미를 다거섯재부터야 물소리끈허지고 고요하고 寂寞함을 깨닷게된다。오르면 오를사록 더욱靜寂하나 오른편가을 도라보면 높다고 손가락지던 봉오리 발미레떠러지고 이옥고 毘盧峰꼭대기에 올라서니 蕭條한 바람이 머리를스친다。벌서夕陽은 凌虛峰에 기우럿고 晴明하던日氣가 갑작이흐려지며 빗방울이 떠러진다。峰頭에서 구버보다 內外金剛은 雲霧에드러 노픈봉오리만이 힌물결에 겹은바위모양으로 구름의 오르내리는대로 노파다 나저다하야 방금보이든것이 금시업서지고 업던것이 瞬間에 생겨나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山形과雲霧보더할사록 눈이 현황하다

비방울 굴거질때에 우리는 峰을내려 龍馬石을 向하야 전진히 거럿다 久米山莊할제나서 부러는 끈치는 물소리 다시 들린다 龍馬石에서 一夜를지나고 아츰에 雨後를 갓추고 飛沙門 아득한 사다리를나리니 물소리 더욱 雄壯한데 九龍淵이 여기라한다。비는 끈이어서나리고 瀑布는 점점더 굴거지고 떠러지는 물소리 더욱 힘차게울린다 外金剛의 山水美도 雲霧에 차엿스니 물길이업서 물소리만 동무삼아 神溪寺에 잠간 다리를쉬고 文筆峰고개를 넘엇다

溫井里에 하로밤을 지나고 떠나오니 金剛山을 꿈에나 보앗다고 할까?

文章論

現役作家들의 伎倆 —그들의 個性과 領分에 關한 小考— ⑤

安懷南

이것은 名文章이라고 할수는 업지만 내가 조하하는 氏의 文章하나를 紹介하면

『그리자 그의여름 귀여운 오사꾸(童妓)가지나갓다。춘삼이는 저도 몰으게 거름을 멈추고 고개를돌려 그의뒷모양을 바보가티 바라보고잇섯다 그것은 이를테면 건전한식욕ㅣ오직(誤植)이아님ㅣ이엿다。춘삼이는 고국에서 꼭한번 먹어본일이잇는 닭고기를 연상하고 침을삼켯다。그러기로 말하면 바로십분전에 정랑포끔목에서만난 도시마(中年婦人)의 몸냄새에서 시금치나를 생각을 안아엿든것은 아니지만……』

『사훈합』『보름달』속에서 따온것이다。이러한것을

……心……理와行動이 한데凝結하여잇는 그아말로 有機的으로 構成된文章이라고 評할수잇다。맛는데 前記爬虫類의文章에 맛대어보면 現今同氏는 그의文章을 오히려 좃치못한 道程으로 끌고들어와잇는것이 아닌가 念慮된다。氏의 最近것을 들추어보면 事實 大概가『悲涼』에 類屬된것이지 하나도사훈합『보름달』의 것과가티 用曲이 만흐면서도 圓滑하고用意周到하면서도 簡潔한맛이 적은것이다。우에서 말한『가마귀』속의『새벽우흘처럼 주홍히 닭은볼말』안의『닭고기를 연상케하는 오사꾸』이런것은 내가읽은文章속에서는 가장 그作家와 才能과 個性을 發揮하기에 조흔것이며 李泰俊氏의 그것은 散漫的인 表現이라할수잇고 李孝石氏는 情緒的 朴泰遠氏의것은心理的인것이라 分明할수잇스며 在來의作品을體系的으로 생각하면

……作……家의特徵과 그理論 李泰俊氏와李孝石氏는 서로舊間 따구어잇는彩機的인것이다。『가마귀』의 文章이 感覺的 要素가 豊富하다는것은 上論한바와 갓거니와 李孝石은 方今『산』『들』속에서 로맨틱한 꿈에저저잇기때문이라 解說하는 바이다。

『나는 짜징을 내면서 조ㅇ롬이 잔득실린 눈덤을 막부비엇다 야업(夜業)을하고 아침여덟시에 집에나와서 밥도먹은사이어서 들어누엇든것이다 승선이 소옥처럼 피곤하야져서 끌어가도 몰으게 자는것을 깨이는것처럼 불유쾌한일은 업다。나는 나의 수면방해자여하에 따라 록록하게욕해주라고 얼굴을 찡흐리면서 눈을 가늘게떳다』

이것은 李北鳴氏의『어리석은사람』『紹初의 조름이 실린 눈두덩을 막부비엇다 다른것과 눈을가늘게 떳다의 前後動作의表示가 제대로 알맞지안흔것갓고 文脈이 混亂하야

……端……正함이 업다。나는 이것을 用語나 文體 또 修辭 어느것으로 보든지 愚作이라고 녀이는때 이것을 조흔文章으로 推薦할사람은 업슬것갓다。『睡眠妨害者 如何에 따라』하는것도『록록하게 辱해주라고』하는것도 모다 어색하며 끌어가도 몰으게 그러케疲困하게 잘자는것을 깨면 不愉快하다 하엿는데 勿論이지그런神通한 소리는 하나마나다。『조름』을『조으름』『소음』『소옴』이라하엿든대 무슨緣由인지 알길업고『속가티피곤햇다』하는表現은作者가 썩 努力을보이느라고 한것가튼데 平凡한것이며『綿のやうに 疲れた』를 飜譯해노흔 냄새가나서 食慾不進을주는句節이다。

『꼬리를 감춘 한강의줄기는 은실이꼬불거리는것 가티보엿다 돈대는 헛깃헛깃 꼿꼿에 점올져어노앗다。북악산이눈아래 노이고 윤조압 큰길은 힌허대를 끌려서 내던진것가티저 개보엿다。그의눈은 이길우에서 떠나지를 아니햇다。길우에는 서낫가만한 전차들이 줄풀거리고 굴러다긴다。』 (宋影氏作『春夢』)

宋影氏의 文章은 直線的表現이요 朴泰遠氏의것처럼 꿉틀거리는 婉曲한맛은 손톱만치도업스며 그것이 틀게떠질때에는 별딴판양으로

……平……面的이다。딸아서單調하고 無味乾燥함이 탈이요 길고 덤기만하지 노파와 깁이가 貧弱하다。가다가 빤짝하고 光彩를내이는데도 업지안흐나 그것을 仔細히 살펴보면 寶石이아니고 사금떵이 인것에는 적지안게 遺憾이다。江舍기는 은쉬갓고 돗대는 희점가트며 집은 허더룰 끌려던지것 갓다 한것이라든지 서낫갑 가튼 電車등도 먼저 說明한 李泰俊氏의『상장(喪章)』가튼 마스크로 李孝石氏의『이야기속 사람들』朴泰遠氏의『지금지나물을 연상케하는 도사마의몸내음새』등처럼 感覺的인것도 아니요 情緒的인것도 못되며 心理的인것은 더욱아니고 作者의 純然한 이지고잉으로 되여잇는 것이라 본다

가을의待機

漢詩募集

題…白頭山
押…峯
限 九月末日
(薄謝進呈)

한글의名稱 (下) —그由來와變遷攷—

方鍾鉉

다음俚語라고하는 語句로 이 正音의意를 代表한것도 흔히文獻上에서 보는일이니 그一例만을 들기로하면 中宗戊寅四月條에

…如辟瘟方則瘟疫之疾易於傳染人多死傷故在世宗朝董憤人命飜以俚語印頒中外…

이라고하엿스니 이俚語라는말은 結局 方言이라는 意味의것이나 다름이 업다

諺文이라고하는것은 漢文이라는名稱에 對立식혀 생긴말이니 마치 漢文을 眞書라고 하므로 우리글을 諺書라고함과 對照되는것이다。即 諺이라고함은 俚言 或은俗語를 뜻함이니 事大를 가장큰일로 밋고잇든當時이니만큼 그時代의 사람으로서는 不得已한 일이엇지만은, 이즈음에는 이러한名稱을 使用하기를 一般으로 꺼리게된것이 또한 今日에 잇서서의 當然한 現象의 順序일것이다。

反切

反切이라고하는말은 漢文의字音을 表示하기爲하야 두글字를 合하야 一字의音을 나타내엇이니 例하면 東字를 德紅切로、德을 胡加反으로 한과갓다。文字學名詞辭典에 보면

反切亦稱反音翻切翻語或止云反云切蓋合二字以爲一字之音所以讀直音之窮也其與西文拼音之理相同彼以子音母音相合而成音……

이라고하엿다。이글의 所示와 가티 子音母音이 相合하야 成音이라것과 아울러 二字가 合하야 一字를 일운다는 形式에서 正音即 諺文을 反切이라고 名稱을 가지게된것이니 이法이 어떤點에 잇서서는 一致되는 形式도 가추웟다고보겟스나 其實 漢字의 所謂反切이라는것과는 根本이 다른것으로서 그이름이 假用된範圍도 甚히 좁거니와 適當한 이름이라고할수업는것이다 反切의法은 魏의孫炎이 처음으로 製作한것이라고 隋宋以後의 歷代의 諸儒家가 別로 큰 異議를 가지지안코 미더오는듯하나 그러나 이보담도 이와가튼 法이 임이 漢末에도 잇섯다는 說이 잇는만큼 亦是 漢代로부터 漸次 部分的으로나마 行하여오든것으로 보는것이 當然할 것이다 이名稱을 諺文에도 使用하엿스니 訓蒙字會의 訓蒙凡例中에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字

이라고한것이 잇스며 詳淸寳鑑凡例에도 가튼文句가 잇스니 以來 反切이란名稱으로 諺文이란 名稱을 가지게 使用하야 今日에 至하엿스나 訓蒙字會에는 俗所謂라고 하엿슴으로 이俗字의뜻이 아님가하는點이 잇스니 同凡例中에서

一諺內讀俗者指漢人之語也人或有學漢語者可兼通故多收漢俗語呼之名也……

이라고하야 諺內에 俗이라고한것은 漢俗을 指示함이라規定으로보아 多少 疑心이 업지안흔 것이다 이와가튼 여러點으로보아 反切이라함은 諺文을 가라치는名稱으로 볼수업는것으로안다 그러나 五洲衍文長箋散稿(卷三十三)에 보면

…我東則以崔世珍所製訓民正音爲翻切以諺諺文反切翻反爲音反之反不知反切之反音翻也呼之以翻切爲正也…

이라고한것이 分明하니 諺文이라는 名稱以外에 反切이란이름으로 使用된것도 事實이다。

한글

以上에서 말한名稱은 모도 漢文을 崇尙하든時代에 생긴 이름이니 時勢가 變動되매 따라서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것은 勿論이오 文字의稱號도 그에 따라갓것이 正音반포時이겟다 그러므로 反切이니 諺文이니 하는 뜻기실흔이름이 漸次 줄어지고 國語 國文가튼 말이며 至今부터 約十年을 前後하야서부터는 새로히 한글이니 가갸날이니 하는名稱이 始作되는 때의 順序를 밟게되엇다 光武十年 松村池錫永의 字典釋要原序에 보면

我東訓蒙字書之以國文釋義者不過千字文類合訓蒙字會之類而國文之釋法亦未明其高低…

至今부터 十年前인丙寅年이 訓民正音頒布後 四百八十年即八週甲이 되는해이니 이해에 비로소 가갸날을 陰九月二日九日(十一月四日)로 定하야 記念하기로되니 이것이 가갸날의始作이고 記念하가 처번이다。그러나 가갸날이란이름이 一年도 못지내서 한글이란 새이름이 이에 代하야 한글記念日로 되어 今日에 至하니 한글이란 이름도 어느듯 十年이되어 그意味가 多少 俠義를 가지게되는듯하다。

以上으로서 訓民正音이란名稱으로 發布된以後 今日에 至하는동안에 불리워진이름을 가장 簡單하게 차자본것이다

漢詩 —『蓮』— 押心

柳閔考選

三等之三

宜昇浩

金波漾漾王塘沈
濯出淸漣君子心
葉葢翠翻風細細
粉房紅墜露陰陰
楚臣高獨衣裳冷
越女新愁歌曲深
同是香名千載下
濯勝霜菊月中林

評日 不必奇句驚人而全篇圓備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登攀의 高山衛生學的考察 ⑥

醫學博士 申聖雨

(1) 登山家의體質及健康狀態 體質이 弱하야 적은 運動에잇서서 容易히 疲勞되는者는 勿論登山의 資格이 無하지만 如何한 體格 又는體質의 保有者라도 一次 身體를 檢査한後에 登山의 可不可를 認定할수잇는것이다。心臟病者 腎臟關氣 喘促症이 有한者는 絕對로 不可한것이며 小便檢査와 血壓檢査를 施行하야 腎臟病에 極히 微量의 蛋白이 出現되더래도 登山은 그만두는것이조코 血壓에對하야는 山頂에서 血壓이 上昇된다는 學者도잇고 下降된다는 學者도잇서서 意見의 不一致點이 有하나 登山時 即힘드러올나갈때에는 血壓이 上昇되는것이 定則이니만큼 血壓노픈 病을 가진사람이 힘드러 運動하는것은不可한줄로안다 가끔 老人이 山上에 올나가서 身體及精神 氣分이 平地에比하야 조혼感이잇다는것은 其氣候關係가 平地에서 보지 못할不可形言의 好感이有다는것은 醫者의 經驗하는바이다 故로 어는學者는 相當히노픈 血壓亢進者라도 登山의 訓練을 加하야 實行함이 조타고말한다 然이나 그는程度問題이라할 考慮할 必要가有하다고할수잇다 特히白頭山은 數千尺의 路程이 急速히 上昇되는 傾斜가아니요 徐徐히 漸進的登山이故로 若干의 血壓亢進者로서는 寧히甚高할수잇스며 오히려 天池附近에 安靜休息한다면 氣分이조와질것가리 筆者는 生覺되는바이다 勿論各個患者의 血壓의降下를 確實히證明치아니한 筆者로서 獨斷的 斷案이지마는 白頭山城에 登山으로서 高度의 障害 平時에 이르키지안는程度의 血壓亢進者는 白頭山登山에아모障害가 업슬줄로밋는다。

體格에對하야 特히 體格의大小 榮養의多少와 登山과의關係를 論할진대 體格이 偉大하고 榮養이 佳良한 肥滿한者는 外觀과는 相違되야 登山에는 弱하며 瘦瘠하고 貧弱한 體格者가 오히려 登山에 適當이될수잇슴은 世人의 周知하는바이다 卽 肥滿한者는 疲勞하기가 容易하고 登山訓練에 效果가 瘦瘠한者에 比하야 적은것이다。故로 登山者의 體質을 論할진대 所謂 中肥中瘠(肥滿도 아니요 瘦瘠도아닌)人이 理想에갓가우며 登山型이라고 할수잇다

(2) 登山訓鍊 學業者 或은 그에 갓가운 生活을 하는者가 急作히 高嶺을 登山키 不能함은 勿論인것이나 大體로 보아서 登山이라는것이 벌서 一大勞働的이요 또高山에는 氣壓氣象의 變化 酸素의 缺乏 體中血液의 變化 新陳代謝의 變動等의 影響으로 因하야 心身에 一大變化를 이르키는만큼 아모豫備的訓練도업시 高峰을踏行한다는것은 無謀의 行動이라고 볼수밧게업는것이다。故로 相當한 準備的訓練에依하야 意外로 弱한者가 아모障害업시 登山할수잇다 筆者亦是體重이 十二貫밖게안되는 弱質이나마 數月前부터 每週一回一日五六十里의 路程으로 登山하야 其訓練의 結果今番白頭山探險에 成功한줄로 밋는다。故로特別한 宿患을가지지아니한者면 相當한 訓練만잇다면 如何한 高峰峻嶺이라도 登山할수잇는것이요 白頭山과 如한 高山地帶는 一層더 容易함것이라고 말하는同時에 누구든지 될수잇슴을 强調하는바이다

(3) 登山은漸進的으로 登山作業은 急進的은 絕對禁物이라急進이라는것은 山岳病의 原因의 一分子가 되는疲勞를 만드러주는것 外에 또急速히 노파지는것이 身體에 惡影響을 주는것임 으로、登山의 秘訣은 結局『緩步不休』라는대 잇는것이요熟達한 登山案內者가 恒常말하는바요 또自己가 實驗한바이다。其意味中에서 不休라는말은 가장 意味가끈바요 生覺할點이다 或一地點으로부터 他一地點까지의 사이를 安全히 速히 踏破할수잇는 秘訣이것갓다 然이나 長行路는 必히 數回에 區劃하야 階段的으로 行進할것이요 一區劃을 到達한後마다 相當한 休憩를 要할것은 勿論이다。特히 3000米以上地帶에 잇서서는 數時間의 休憩를 要할것이며或時一泊 二泊을斷行한다면 山岳病豫防上 效果가 적지 아니할줄로 밋는다 白頭山에서는 上頂을 올나가는 十五里假量의地帶를 終日行進한다면 相當한數의 山岳病을 볼수잇겟다고 推測되는바이다。

(4) 充分한睡眠 登山前夜에 잘자는것은 疲勞를 적게하는點으로보아서 가장 必要한點이요 登山實際에는 生活方法이 變하얏고 또周圍狀態가 高山病이 아니라도 不眠症이 이러나기쉬운것이다 故로 催眠劑를 使用하야 適當한 時間에 睡眠토록하는것이 조흔것이다。平素에不眠症이 有한者는 山上에서조곰만혼 分量의 睡眠藥이 必要하다。

(5) 便秘症을防止식일것 便秘는 生活形式이 變할때 이러나는 病이니 安靜할書만 하든者가 急作히 旅行을하면 便秘가 이러나며 旅行마다나고 勞働만하든者가 安靜을 取할때에도 亦是便秘가되며 登山時에도 便秘가되나 便秘는 귀여운 胃內食物停滯의感을 이르키는만큼 山岳病을 誘致식이는 일이만라 故로 緩下劑의 使用이 必要한것이다。

(6) 筋肉疲勞의防備 登山疲勞를 防備하는대는 筋肉구리코ゲン消費量을 補給하는 意味로砂糖 카라멜等이조흔것이다。

(7) 白頭山 登山時에는 勿論도其外의 寒風이 甚한 高地에 올나갈때에는 鼻尖部 及口唇部에 『藥와세린』을 塗布하고 鼻와口를한꺼번에 막을만한 『마스크』가 必要한것이겟스며 또紫外光線으로 因한 眼結膜炎 或은 積雪性盲을 豫防하는 目的으로 紫外光線의吸收되는 眼鏡을 使用하는것이 必要할줄로생覺된다。

(8) 山岳病이 發生되얏다면 充分한 休養이 第一必要事項이요 酸素瓦斯의 吸入이 確實한 效果를 나타나게한다 Kogos氏 方法에 依하면 酸素瓦斯中에 數%炭酸瓦斯를 添加하야 吸入식히면 一層有効하다고 말한다 其外全身無砂食가든것이 조흔나 結局은 患者를 速速히 下山식이는것이 第一上策인것이다 其外에 病症은 對症的으로 醫師의 治療를 要할것이다。

附 일울分이 만흔 酒類는 寒氣가 甚하고 風雨때에 조곰 使用하면 一時好感이 有하나 其後寒時에는 一層 더寒氣를 오게하는수가잇스며 高山을을히 올나가거나 或은 終日徒步에 酒類의 過飮은 疲勞를 一層더하게하는故로 飲酒家라도 適當한時期 少量식 使用하는것이 可한줄로밋는다(完)

나의關心事

文學俱樂部

金龍濟

現代와 가튼 問題의激流中에 사는 우리는 社會人으로서도 文壇人으로서도 有爲轉變하는 社會現象과 人生營爲에잇서 心眼으로서 關心事업는 하로라도 太陽을 불수는업슬것이다。참으로 關心事는 넘우도 만타。그中에서 特히 나의關心과 興味를 刺戟식히는 問題의條目만을 추려서보자。

一、日本人民戰線의現在와將來
一、스페인革命과歐洲의情勢
一、極東의日蘇問題

다음 文學的關心事二種

一、發展的리얼리즘의强化

有爲한 批評家들 作家들은 初秋의好機를 모멘트로 저紅熟한林檎과가튼 香氣노픈新鮮味를 가지고 이 時代의階段에 가장適當한 指導的論文과 作品의生産을 待望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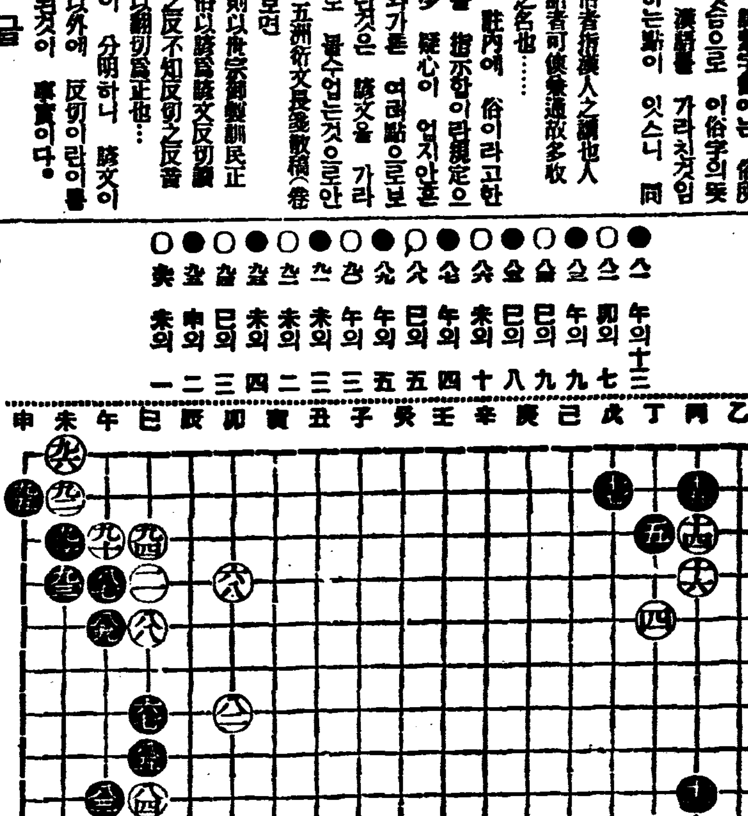
一、朝鮮進步的文學者의 俱樂部

아마도 最近과가티 俱樂部의 全盛時代는 업슬것이다。日、獨立作家俱樂部 日詩人俱樂部等等。우리들은어떠한 時代와 情勢를 勿論하고 그客觀的事情이 容許하는 範圍內에서 集團的生活을 必要로한다。더구나우리들文化人에 잇서는 가장 그러하다。朝鮮文壇의 殆半을 占領하는 進步的 自由主義的 文學者들 大同親合하야 社交的 親睦懇談의俱樂部를 結成하면 얼마나 朝鮮文學의 發展을 爲하야 有意義할가。그의 가장可能한 安全한 發展을 爲하야는 獨家俱樂部보다도 더업신 大衆的 範圍로 모든政治的 黨派와『獨立』한 單純한 文學的 社交團體로 存立식힐點일것이다。

圍碁對局譜 —6—

本社主催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禁極文氏評日 黑이 午未五六區에 穩健生活로 白이 外勢를 連結하엿스니 이로써 보면 黑先을 不可不備이다 黑이 先次中央進出을 預想하야 어째 區區生活을 하리요

讀者社交室

▲昭和十一年二月十八日本欄에 廣告하신 古貨銘鑑錄에對하야는 生의게存在하오나 價格만은一圓二十錢이오니 參考處가 有하오면 代金添付하여 通寄하시압 逝逝付送하게습니다 苗浦 安永昌

▲彫刻家諸先生님께 뭇습니다 小生은彫刻에 多大한 趣味와素質을갓고 『바데ㅣ』等으로 二三個小品을 製作하여본바 確實히 自信이잇서 今後本格的으로 이方面에 精進코저하오나 材料及器具販賣所와 彫刻에關한 基礎知識을 어들만한 書籍을 求하지못하야 苦悶中이오니 手苦스러우신대로 左記品販賣所 價格을 下敎하여주시요 發憲生

▲鄭用鶴君아 只今은어데잇스나 염서예잇보내여야 주소가업서서대단이답답하다 그리고어데서고생이나하지안는지 알고저한다 答평여에서 고저여까지가면서자면안길이다 속히 편지하랑해다구 通川邑內 黃友

▲金熙星君!! 웨消息이 업습니까? 至今은 무엇을하신지요? 옛날普成高普學生時代가 그립습니다 여러學友들이여!! 金君의 住所를 아르시면 通知하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全南高興邑內 申俊甫

▲親愛하는讀者諸位께올니나이다 生은山間無職靑年의하사람입니다 뜻사오쏙 스리硝子를製造하는事實이 有하다하오니 藥名과販賣店住所를 明記하시와未納郵便으로左記住所에 下敎하야주시요 平南成川郡中面南陽里三六 ○ 崔昌鎬

▲나의가장親愛하는 朴寅植君이여 君과나와作別한지도 於焉間十餘年이되엿네 君은至今어데서 무엇을 하고잇는가? 讀者여러분 右人은 나의同窓한親故입니다 十餘年前에 江原道에는사諸公普校에단이다가 咸北富寧公普에 轉學한일이잇습니다。讀者여러분中에 或아시는분이게시면 社交室로通하야 住所를알여주시면厚謝하게슴니다 松湍 K生

▲北平게신 黃一甲兄앞 貴重한 讀者社交室을 버러兄의게 두어자못고저하오니 辛苦莫論하시고 左記의問題를 下敎하시옵

一、北平에서 第一有望한朝鮮人의 事業
一、事業經營의資金(但最下의資本)
一、安東縣게시든 張日鉉氏의住所及 同夫人의姓名 年齡、本籍等을 下敎하시옵소서
一、兄님의 住所를下敎하실事情의便紙를쓰겟습니다

楚山面 龍川兄弟峰人

新刊紹介

▲講臺寳庫 第四輯 金正賢牧師著 發行所 京城府孔德町二二ノ一二 新叢社 振替京城一九七四五番 定價紙衣八十錢 布衣一圓 販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朝鮮耶穌教書會 振替京城四〇八一番

▲野談 九月號 (內容一許生傳十年난情、서울의三怪女、燕山朝秘話、全譯三國遺事、恩緣이나義理이나、金玉珠、中國神話等其他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二十錢

新日本의傑作品
펄은싱거ㅡ미싱과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國進日本!의覇者

이 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 잇는 國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產蛇目재봉틀!!을生產하게되엿습니다。

國產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슴으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 됨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싸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이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激히 增大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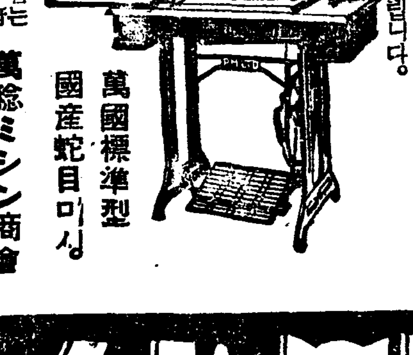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產額二百三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 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 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年賣上豫想數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商標

國產 蛇の目 미싱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萬國標準型 國產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地名	代理店
黃海道沙里院	吳得龍
黃海道延安	李在原
咸南惠山邑	朴宗洙
黃海道海州	崔[illegible]
全北南原邑	朴琪永
黃海道甕津	洪政杓
黃海道信川	金[illegible]
平南平原	李一枝
平南江西	朴達文
平北鐵山	李萬[illegible]
黃海安岳	金秉律
京畿道江華	高必[illegible]
慶北金泉	朴聖[illegible]
慶南晉州邑	朴容店
同州郡邑	二[illegible]申商
慶南晉州	河[illegible]元
京畿道水原	李[illegible]
黃海道松禾	崔[illegible]世
慶南昌寧	周[illegible]丸
慶南宜寧邑	千[illegible]
固城	崔[illegible]
京畿道安城	金貞[illegible]
論山	梁[illegible]
咸北吉州邑	全竹[illegible]
咸南北靑邑	平山ミシン商會
黃海道南川	尹泰[illegible]
京畿道開城	李泰文
忠南禮山	安正[illegible]
慶北榮州邑	吳達[illegible]
替里邑	白南[illegible]
全北全州	[illegible]
全北扶安	金在根
全南光州	光州ミシン商會
京畿道文山	鄭錫[illegible]
平北碧潼	金榮五
全南長興邑	朴必煥
江原道長箭	李尚[illegible]
咸南咸興	董信[illegible]
江原道原州	安[illegible]
平南勝湖里	安鍾哲
全北[illegible]樹	王輪柱
平壤	朝鮮ミシン商會
慶南密陽邑	金采[illegible]
京畿道楊州	李仁[illegible]
江原道通川	朴泰[illegible]
慶北安東邑	[illegible]
洪州	元千吉
慶北榮州	鄭元[illegible]
咸南端川	金東[illegible]
黃海道谷山	谷山ミシン商會
平南鎭南浦	李[illegible]
慶南統營	李大任
江原道伊川	[illegible]
全南康津	世信服店
高興	朴洋[illegible]
醴泉	黃[illegible]宇
太田	[illegible]在[illegible]
平北新義州	李一[illegible]
慶南蔚山	金明和
京城	[illegible]正[illegible]
奉天	黃[illegible]河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
大阪支社 大阪市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一〇
各地支社 名古屋、福岡、神戸、京都、高松、甲府其他

映畫界의珍客
스턴 버의 會見記 (1)
安夕影

來朝 스탄-버-그 朝鮮에왓다

氏의作品으로 出世作「救援을바라는사람들」은 朝鮮에서 上映되저안햇슴으로 보지못햇고 로-키-「모로코」로부터 上海特急、間諜×27號、西班牙狂想曲等의 作品을 보고 그의 面貌라는것은 雜誌나新聞에서 寫眞으로서對하엿슬뿐 어世界的인 映畫監督을 面對하리라는것은 생각도아니햇섯다

勿論 그의作品에서 그의全部를알수잇스면그만이겟스나 氏가 朝鮮에까지와서 朝鮮映畫人들과 한座席에서 胸襟을펼치노코 自己의映畫를말하고 또하朝鮮映畫에對하야 自己들의映畫나가리아 프로의 製作方針을 함께討究한것이 實로 우리들의게 기뿌아 되는것이다

그는 東京에서 또는別府行汽船上에서 大新聞記者들과 會見하엿슬때도 여러가지 質問에對하야廻避하엿슴을 新聞記事로 보앗슬때 그의人物됨이 까다럽고 또는 優越感이잇슴을 늑기게하엿스나 氏가 京城에와서 「一晝夜」를 滯在하는동안 朝鮮의映畫를말하고 朝鮮의美點만을 차지랴는데에 힘쓰랴는것은 여기서 참다운藝術家의 一面을볼수잇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여기서 우리들映畫에從事하는사람들로서 만흔衝動과 여러가지의 새로운意圖를 가지게된것은 그는 獨逸人으로 헐리우드에서만 끄치는映畫人이 아니라 그는世界人으로서의 스탄-버-그임을 본바다

그는釜山서 車에올라 三南水災地를 지나오면서 늑긴感想談을 드러본다든지 서울 행랑뒷골에서 도朝鮮의 옛文化의자최를 차저본 것이라든지 朝鮮의音樂에서 朝鮮의 藝術方面의未來를 바라본 것이라든지 또는 朝鮮(映畫人)들의눈을보고 朝鮮의(映畫)의發展의길을엿보고 朝鮮映畫의 압날을 確信한다고 말하는것 또는 [illegible]에서도 朝鮮映畫界가 [illegible]에서도 世界映畫水準에올흘날이 멀지안타는것을 明示하는等 米國의社交的인 言辭비슷하나 참다운 藝術家의 [illegible]한 態度의一面을 엿볼수잇섯다 먼저그는 朝鮮에올생각은 업섯던것이 大阪에서 朝鮮[illegible]들을 보고 朝鮮에올 결심하엿다는것이다

여기서는 氏의意圖를 여러가지로解釋할수잇스나 나는여기서 眞實한意味에서 若干의疑心을 가젓스나 正當한藝術家의態度를 가지고 探求해볼 힌트를어덧슴이라고해둔다

그것은 朝鮮映畫株式會社創立事務所內 朝鮮映畫社晩餐會席上에서나 映畫人諸氏의主催인 歡迎會席上에參列한사람이면 그가 어듸에다가 觀照의焦點을두는가를 엿볼수잇슬것이다

어쨋든 「스탄-버-그」氏가 서울에왓다는것은기뿐일이며 氏가 옴으로 다른方面에는 물론도 朝鮮映畫界에 若干의波紋이 잇슬것은 疑心하지안는다

여기서 氏가 朝鮮에온것이 그저 漫遊의길에 들른것이겟스나 氏에게서 우리가 조그마치라도 새것을어덧고 또氏는 우리에게서 조그마치라도 부드러운 印象을어더가지고 가는바가잇섯스리라고생각한다

비로서 이것이 朝鮮映畫人과 外國映畫人과의 交流의 첫契機엿다 (寫眞은 스턴·버氏)

映畫界揷話

레인코-트二十四個

메트로社의 新人에리사베스·아랑는 비가오시면 눈오는날개처름 질거워한답니다 그리하야 우산도아모것도업시 그냥비오는 거리를뛰여다니는데 「헐리우드」는비가 잘오지안는곳이므로 그女子는 늘비만히오시는곳을 그리워한답니다

그러나 雨傘은 안가지면서도 「레인코-트」는 特別히 조화하야 스물네個의「레인코-트」를가지고 잇슴으로 終林에서는 評判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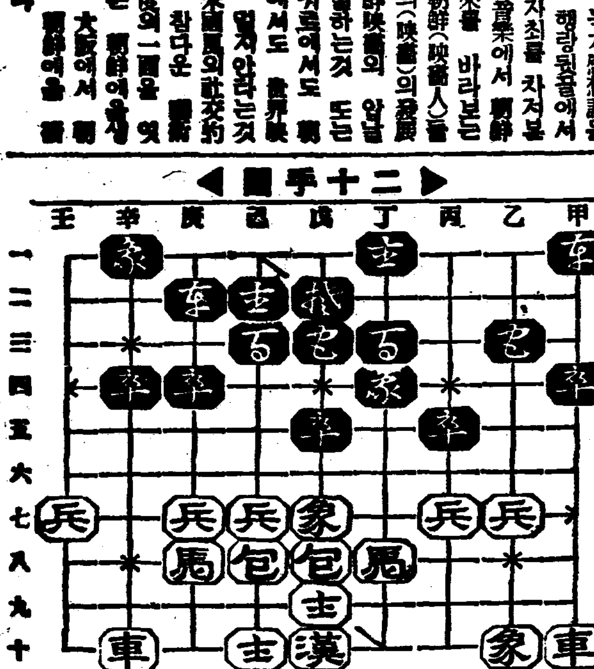
伯爵女優

『사랑의白夜』에서 「그레이스·무어」를 「이발도적거히」에서 「리안·하-버이」를 물리치고 堂堂히 一類로 데뷰-한「르리오·칼미나치」는 지금은 一介의俳優나 根本은 伯爵과 男爵사이에 난 無男獨女로 아주 그女子의 祖母는 有名한 伊太利의 「푸린세스」랍니다 그리하야 그女子의 일홈을 正確히 말하면 「르리오·칼미치나·듸·부랄브라」伯爵입니다 그래서 그女子는 이일홈을 지금도 「크리쓰·마스·카-드」에는 꼭잘使用하고 잇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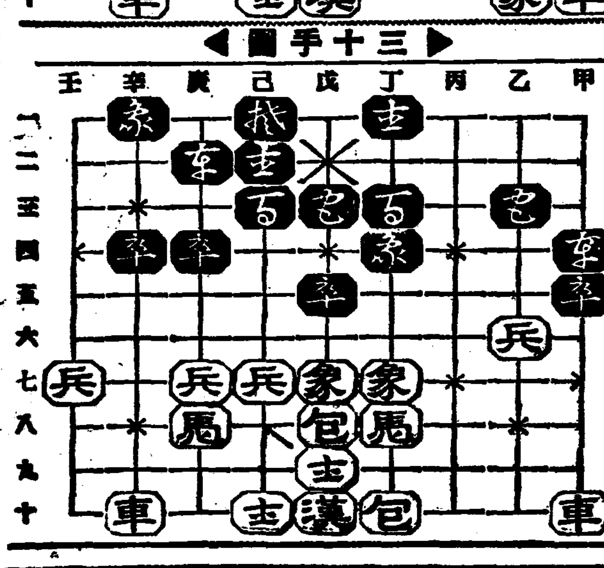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

楚先手 金宇石 漢 李在鳳

◀二十手圖▶



◀三十手圖▶



甲四卒—甲五
己六包—丁十
甲一車—甲四
乙三象—丁五
戊三卒—己三

丙七兵—丙六
丙四卒—乙四
乙七兵—乙六
乙五象—乙七打兵
丙六兵—乙六打卒

라디오

七日(月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一)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作曲 二、메밀꼿…朴世永謠 玄雲作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外實演兒童多數

◇同六時三〇分 經濟解說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宿習의美點과弊害』 朝鮮日報 徐椿

◇同八時 曾成高普 黃善敦 一、뱃노래 二、새타령 三、六字배이 四、興打鈴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金柳色 鄭柳色 一、洞里앞수양버들 二、꿈가튼우리靑春 三、浮世草 四、相思草 五、人情 六、故鄕의바다를차저 七、靑鳥야웨우느냐 金玉

◇同九時 歌謠 一、白頭山 二、文明仙 金剛琢 大岑 金永根 杖鼓·金一宇 伴奏JDK管絃團

第一放送

◇午後六時 [illegible]

◇同六時二五分(京) 童謠 江原 [illegible]

◇同七時三〇分 [illegible]

◇同八時 (ト) 人形淨瑠璃 文樂座에서中繼 作·編曲·指揮 大隅泰人

◇同九時 (大)昇-적·랄드라마

八日(火曜)

◇午後零時五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孔明歌 三、[illegible] 四、자진배다라기 五、진난봉가 六、자진난봉가 文松[illegible] 全光泳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全朝鮮野球爭霸戰" —京城그라운드로부터—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海邊의少女…金泰午謠 玄雲曲 二、메밀꼿…朴世永謠 玄雲曲

◇同六時三〇分 兒童新聞 外實演兒童多數

◇同七時三〇分 經濟解說 金[illegible]文

◇同七時三〇分 講演 "運命과迷信" 金晉燮

◇同八〇〇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 二、並唱 (가)短歌 大丈夫 (나)唱劇調 春香歌 伽倻琴 池龍九 鼓手 李素香

◇同八三〇 멘돌린合奏 一、小品—여름에서…高橋功作曲 二、바람에 꼿에 잠자리에 三、자장가…킬러作曲 三、荒城의달…瀧廉太郎作曲 四、宵待草 多忠亮作曲 五、小夜曲…井上寮隆作曲 高橋멘돌린·앙상블

◇同九時 古談 "殺獄의明斷" 申淸居 指揮 末岡克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速成獨語講座(卄一) 登張信一郞

◇同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大久保直穆

◇同〇時五分(東)講談 小金井蘆洲

◇同六時(大)日本史 小笠原道生

◇同六時二五分(東)靑年時間 大阪國史劇研究會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坂本俊篤

◇同八時 琵琶 ? 俊篤

◇同八時一〇分(東)淸元 淸元梅美代子外

◇同八時二〇分(東)三曲 川瀨里子外

◇同八時五〇分(東)라듸오·레뷰- 古川綠波一座

☆曆☆

九月八日(火) 舊丙申七月大(廿三日) 癸巳·水·箕·成

●祭祀에宜함

●白露 八日(舊廿二日)

●秋分 廿三日(舊初八日)

婦人病克復 美容助生에

中將湯 (중장탕)

初秋의 健康과美容

참美容은참健康에서가아니면어들수가엽다。 女性의健康美에는絕對로中將湯입니다

美容의敵 婦人病은一氣에治療

初 秋의바람과가티 婦人病도또急激히活動을이르켜어進行性이되므로 深甚의注意가必要합니다。 이로부터 普通婦人이말하는몸의變調例를들면頭痛과 眩氣腰足의 厥冷下腹이아푸거나허리가아푸거나肩臂痛臭氣白帶下가흐르는等은 숨어잇는 婦人病이活動을始作한證據라고생각하면틀님이업습니다。

健 康도美容도幸福도빼아스려고하는것이 이婦人病입니다。 放心은禁物입니다。 治療를게을리하거나姑息된治療에留意하엿다가는回復할수업는 大事를惹起하게됩니다。 此期를逸치마서고 良藥을選擇하야 一氣에治療함이絕對로必要합니다。

中 將湯이야 말로흔히잇는一時回避의 局部的療法藥과 달라서 藥効가 身體全般에作用하고 또副作用도업시 和漢藥獨特한 婦人病을根本으로 治療하는 原因的療法藥으로서 複雜微妙한 婦人病에對하여서는 中將湯에 限한다고 누구던지곳생각할수잇는 오랜 歷史와卓効를가진良藥입니다。 迷惑치마시고 服藥하십시요 여러케하야무서운 婦人病도解消하고 明朗快活한 生生한 健康美가나서빗나게됩니다

解散을쉽게하고肥大해진다

産前産後에는 몸의全組織이衰弱에 傾하되거쉬우며充分히抵抗力을强하게하고[illegible]에서母體를安産케하는同時에 産後에는瘀血을速히除去하고新鮮한血液을養生하야 肥大하게함에는第一입니다。 그러함에는中將湯이가장効果的인것은임이世上의常識이되여잇슬만치有名합니다。

良効를奏하고

主効: 逆上頭痛 眩氣 腰足厥冷 月經不順 下腹疼痛 히스테리ー 神經衰弱 子宮病 白帶下 肩臂痛 感氣、喘息 産前産後

副用이업는것이特徵

定價	
試用分	金 .20
3日分	金 .50
7日分	金 1.00
15日分	金 2.00
23日分	金 3.00
40日分	金 5.00
85日分	金 10.00

本舖 津村順天堂

[illegible]

各地有名藥店에잇다。

11—9B

平南道旱害罹災民 萬戶에 六萬餘名

대개가今秋부터要救急으로 道當局에서救濟策講究

【平壤】금번봉의 대한발로 인하여 평남도내의 벼농사는 아조망치고말어 오할이상감수내지 전멸된적이 이만오천여정보에 달하엿스므로 도당국에서는 구제책을 강구하는중이나 신통한 방책이업서 머리를앓코잇다 한은 목화가거니와 도당국에서 조사한 리재호수는 일만이천팔백여호 리재농민은 륙만명을초과하여 저들리재민은 명년의춘궁(春窮期)는커녕 금추부터의식명이 위선큰문제이다 구제하지안흐면 긔근을 면키 어려운농민만여명의 리재농민은오로지 당국과도내 유지들의처분만을 고대하고잇는터이며 도당국의 응급구제책으로서는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키는외에 색기 가마니 그게 상비대를구입하여 무상으로농민에게 대부하는외에 그중가장피해가 만타고보는 삼천호백팔십오호에 대하여서는 일호당(一戶當) 원료구입비 십사원사십전식을 무리자로대부하고 계산비 운반비 기타의 비용 일호당 륙원식은 도비로 지출하기로 되엿다 이밧게 지도원(指導員)륙십이명을 재지에 오개월동안 파견하여 색기、가마니 그게제작방법을 지도하기로 되엿다 그러나 이것은 리재호수 일만이천팔백여호중 극히소부분인 삼천팔백여호에 대한소극적 구제책이므로 한층의 혜택을 바들수업고 리재민전부를 구제할방책이 지금에잇서서 가장필요타고한다

清津港의貿易額 一億圓臺에接近?

一月부터七月까지四千餘萬圓 比前年一割以上增加

【清津】날로 발전하여가는 함북과 동만(東滿)의 인후항(咽喉港)인청진항의 무역상황(貿易狀況)은 말과가티 비약적발전을 하야 작년일년의 무역총액이록 천사백칠십이만원으로 단연조선 동해안에 무역왕좌를 점령하엿든바 금년에이르러 일월이래칠월말까지의 무역액은 벌서사천이백만원을돌파하야 작년동기의 이천오백만원에 비하야 약칠할의 격증을 보게되얏슴으로 금년말까지 연일억원에 박두하리라한다

청진을 통하는 중요상품을 보면 수입(輸入)은 의연 만주특산이라는 대두(大豆)와조(粟)두박비료(豆粕肥料)가 각기백만원대를 넘엇고 이입(移入)엔 『레-든』면직물(綿織物)을 비롯하야 칠조(鐵條) 휘발유(揮發油) 세멘트 인견(人絹) 등이 각각 격증하야발전의 특수성을나타내고잇다 수이출(輸移出)로는 비료(肥料)의 사백사십만원을 필두로 어유(魚油) 어량(魚糧)등이 상당히 만흐나 각지공장이 아직 건설중으로 특긔할것은업다

府內各料亭의 營業時間短縮

【平壤】평양서에서는 풍긔문제 건강문제 내지 심전개발문제등에 단속을하기위하야 료정、카페-、음식점등의 영업시간을 전한시까지로 제한하여 실시하는일방 위반한자는 영업정지 내지 영업권리를 취소하기로되엿다 이번의 이제도는 일반부민에게도 호평을 밧게되엿고 따라서 안민방해문제도 업게되엿다한다

盈德郡各界全網羅 風水害對策樹立

【盈德】경북영덕군의 풍수해참보는 루차보도하엿거니와 이에 대하여 세상이 모르게도 종으로 횡으로 동정의 암시가잇거니와 영덕군에서는 지금까지리재민의 의식(衣食)을 전담하고잇스나 무엇보다도 전군각계를 망라하야 구체적 구제대책을 세우고저 지난이일오전십시부터 오후루시까지 군회의실에서 군내각면장 각어업조합리사 각금융조합리사 사업조합리사 기타 지방유지 총망라로 좌와여한결의를하엿다한다

◇決議事項

一、郡、面、職員으로서 江口面 水害罹災民 救護班을 組織하야 江口面事務所에 駐在할事

一、慰問品(特히食料、寢具、衣服)을 募集할事(但九月十日까지)

一、官公吏가 率先 義捐金募集(災害地救濟地帶官公吏는除함)

一、隣保相助의方法을講究할事

一、家屋復舊의斡旋을할事

가、金融組合、漁業組合에서는 資金融通의 方法을 講究할事

나、私有林(材木)伐採許可를할事

다、再災害防止는 其位置에對하야 講究할것이며 또低地 高地에 移轉할事

一、種籾播種(但罹災民에限하야)

一、營農貯蓄、砂防貯金의擁護할事

一、甘藷、種子斡旋할事

一、荒地復舊에對해서는 小作人은 勞力을提供하고 地主는現金又는現物을供給할事

一、郡守總督局을設할事

一、土木派出所와聯絡을取하야道路復舊工事를 時急히할事

(但盈德、江口間은八月三十日 盈德 洛坪間은九月二日 盈德 柄谷間은 九月五日에 復舊開通)

▽……寫眞說明……△

(上)本報宜寧支局救濟米配給現場

(下)本報倭館支局救濟品配給光景

慶南災害各地에 傳染病이大猖獗

五日現在卅名突破

【釜山】경남도내 각재해지(災害地)에 각종의병마가 발호하고잇는데 그병마중 가장 무서운 전염병(傳染病)이 이러나기 시작하야서 오일현재에 판명된것이 적리환자(赤痢患者) 진주(晋州)두명 산청(山淸)팔명 창령(昌寧)네명 김해(金海)칠명 밀양(密陽)두명 양산(梁山)두명 합계이십오명이고 장질부사(腸窒扶斯)고성(固城)삼명 통영(統營)두명 합계오명으로 총합계 삼십명을 돌파하얏는데 압흐로도점점 늘어갈현상임으로 리재민들은 긔한과 병마로 일대공포에 싸여잇다한다 도위생과에서는 이무서운 전염병을 방지하고저 방역에 맹활동을 개시하고잇는중이라한다

暴風에家屋倒壞 人夫二名死傷

【石岩】지난이일오후부터 퍼붓는폭풍우로말미암아 평원군동암면 암정리(平原郡東岩面岩赤里)에서 밤에 가옥이도괴되여 일명은즉사하고 일명은중상을당한사건이잇다 본적은 정주(定州)에 …

傳染病極猖獗 二日間十六名發生

【平壤】전기가물자 평양부내에는 각종전염병환자가 증가할뿐이므로 평양서에서는 방역에전력중이나 여전히 장질부사뿐이어서 삭、사망된건에 신환자가 십륙명이나 발생하여 십팔만부민을 떨리게하고잇다 팔일간에 발생한신환자는 적리(赤痢)다섯명、장질부사 일곱명、성홍열(猩紅熱)세명、지푸테리아 한명으로 발서 작년일년분의배에달햇다 현재의상황으로본다면 장질부사 …

暴利取締嚴重 道保安課에서

【平壤】평남도보안과에서는평양을위시하야 도관내 이부십사군(二府十四郡)각경찰서에 향하여폭리취체(暴利取締)를 하라는 통첩을 발햇다 삼남지방의 미증유의 대풍수해로조선 지방의 수십년래의대한발등으로 평양시내에도 먹을시물가가 폭등하고잇서상만의세궁민들은 극도로 생활상 위협을밧고 잇거니와 이러한소아비상시긔를 리용하여 폭리를탐하는 사、설탕、석리는 극히악성인 폐단가 가지가 장행하는터이므로 본건은 극히주의하여 … 에걸리지안토록 해야 더겟다한다

奉化郡의水災被害 十六萬圓을突破

人命死傷도三十餘名

【奉化】전번수해로 말미암아경북봉화지방의 농작물과가옥 류실등참혹한피해상황을 군당국의 조사에의하면 아래와갓다

死亡三四人 行方不明二人 負傷二四人 家屋流失一〇五戶 同半潰一〇九戶 同全潰八一戶 床上浸水二三六戶 船舶流失四隻

각면별수해는 아래와갓다

小川面 死亡二四人 行方不明一人 負傷一五人 家屋流失四七戶 同全潰一九戶 半潰三〇戶 床上浸水二七戶 船舶流失二隻

春陽面 死亡一人 負傷三人 家屋流失一〇戶 同全潰一六戶 半潰一六戶 同床上浸水四戶

法田面 死亡一名 負傷四名 家屋流失六戶 同全潰二戶 同半潰二戶 同床上浸水七戶

鳳城面 家屋床上浸水一戶

物野面 死亡三名 負傷一名 家屋全潰一戶 同半潰二戶 同床上浸水一戶

才山面 家屋流失三戶 同全潰八戶 半潰一三戶 同床上浸水六戶

明湖面 死亡一名 家屋流失二四戶 同全潰三戶 同半潰一四戶 同床上浸水二戶 船舶流失一隻

乃城面 家屋流失一戶 同全潰四戶 同半潰二戶 同床上浸水三戶

祥雲面 家屋全潰六戶 半潰八戶 同床上浸水一九戶

농작물피해는 부락별계로 아래와갓다

畓流失三十五町二反步 同埋沒二百五十八町八反步 田流失百四十六町六反步 同埋沒百三十六町二反步 被害總額十五萬八千五百三十八圓 八月中降雨量總計 七五四粍

忠北道內水害被害 人命死傷만近三百

家屋被害도六百七十餘戶 九月五日現在集計

【淸州】충북도의 풍수해의피해는 갈사록전솟하수사자를나타내고잇다 구월오일까지에 판명된것은다음과갓다

人命死傷 二八八名 家屋被害 六七〇戶 耕地流失二五〇〇町步

碧潼郡下에 腸窒扶斯猖獗

【碧潼】평북 벽동(碧潼)에는 그간 한달동안이나 고름지못하일기로 농작물에도 그피해가 상당히 만흐리라하며 뎌욱이 부족한 일긔로 말미암아 장질부사가 발생하야 성내 성외에 리병자의 수는 상당히 만흔모양이라는데 더욱이 지난 삼일에는 벽동읍에 장질부사발병자가 다섯명이나 발견되여 지금은 격리병사에 수용하고 치료중인데 인가가 주밀한곳이니만치 전염병이 만연될 념려가 만타고한다 이에 당지경찰서에서는 예방 …

南朝鮮庭球도延期

【泗川】본보지국후원과 사천청탁구락부(泗川睦草俱樂部)주최의 제사회 남조선개인정구대회는구월륙일로연긔하엿는바 이번포풍우등재해로인하여 부득이오는십삼일로재차연긔를하엿다고한다

載寧面邑으로昇格

【載寧】이만가까운 재령면민(載寧面民)은 오래동안 읍제승격(邑制昇格)을 대망하고잇던바 작년추에 도당국에서는 재령읍승격을 목표로 제반조사를 행하고 거춘에는 면으로하여금 읍제인가원(邑制認可願)제출을 허하얏다는바 명년사월일일부터는 읍의 실현을 볼모양이며 이에호응하야 재령면은 제반준비에분주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松本英氏(前扶安郡內務主任)金堤郡轉任人事次本報扶安支局來訪

▲野元鐵男氏(扶安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同上

▲金顯泰氏(開城少年刑務所看守)新任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吉田大八氏(開城專賣局出張所取締役)新任人事次 同上

坊坊谷谷서爭先 赤誠의金品喜捨

本報木浦支局主催 義捐金品을募集 一般의同情을要望

【木浦】본보목포지국에서는 호남평론사(湖南評論社)와련합주최로 금번미증유의 수난으로 말미아마 의지할곳도 업고 먹을것도업는 리재동포를위하야 만분지일이라도 구제코저 좌기장소를 지정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한다는데 일반은 기픈동정으로 돈이나쌀이나 의복이나 물건이 괴로하여주기를 바란다 한다

同情金品接受所

一、務安通 全一商會

一、竹洞 文友社書店

一、南橋洞 朴奧年商店

一、北橋洞 湖南評論社

一、南橋洞 本報木浦支局

衣類百餘點募集 權重烈女史活動

【長興】지난 삼일 … 권중렬(權重烈)씨는 … 한의 류사한처경을 목격하고 사방으로도라단이며서 의복백사십시점을모아 신북면과 본지국에 의탁하야 일반재민에게 나누어달라고 청함으로 신북면서는 즉시로수해리재지로 급행하야 배급하엿다고한다

楊口邑內婦人會 戶別訪問活動

【楊口】수십년래처음의 대수재로말미암아 기아선상에 방황하는 수백리재민을 위하야 양구군(楊口郡) 양구읍·각부인회(婦人會)에서는 회장이하 간부가 총출동하야 각호에 호별방문하야 양미를 모집하는중인데 우리시민들의 가운데는 부인회의 활동에 감격한바잇서 다음과가튼 의연금품이 면사무소에 답지하엿다한다

九千鑛山勞働者中 幼年이一千餘名

咸南道內의集計(八月末現在)

【咸興】함남도보안과에서 집게한 통계를보면 팔월말현재 함남도내의 중요광산은 이십오개소로서 광산에 종사하는 로동자는 구천팔백십이명의 다수에 달한다 그들의 임금은 일일평균 남자륙십전、녀자는 사십전내지 삼십오전이나 되는데 최근의 물가고에 생활난의 비명이놉다 그중 십륙세미만의 소년로동자도 일천일백이십일명의 다수에 달하는데 그중 구백이십삼명이라는 대다수가 녀자인것도 매우 주목되며 그들의 임금은 하로에 불과삼십전내외라는 참상이라한다

奇特한陸少年 衣類金錢을寄托

【公州】충남공주공립보통학교오학년 륙경수(陸京珠)(一三)는 삼남일대의 수해참상을 신문지상으로보고 그소년이 얼든상하의복과 돈사십전을 가지고 지난오일에 본보공주지국에 차저와 수재의 참변을당한 어린동무게 전하여달라는 부탁이잇섯다는데 보는사람들 감복케하엿다한다

花代五圓寄贈 華盛館盧白鶴

【淸州】삼남리재동포의 처참한 소식을 신문지상으로 본 청주화성관에기 로백학(華盛館 盧妓白鶴)은 자기화대로 근근히모아둔돈 오원을 리재동포에게보내달라는의미로 본보청주지국에 기탁하야왓다한다

우숨파는籠中鳥들 衣類六十點寄托

【元山】룡중(籠中)에 갓친몸으로 밤마다 못손에 우숨을 팔리하야 구제의소리는 바야흐로 항도의 이구석저구석에서 울어나오고잇는중이다 가엽슨 신세의 창긔들이 이번삼남과강원도일대를 짓밟어노흔 대홍수해로인하야 긔를 잡하다는 말을듯고 자긔들이입고잇든 의복을 버서서 세탁하야 본사원산지국에 의뢰하야 재지로 보내달라고 가저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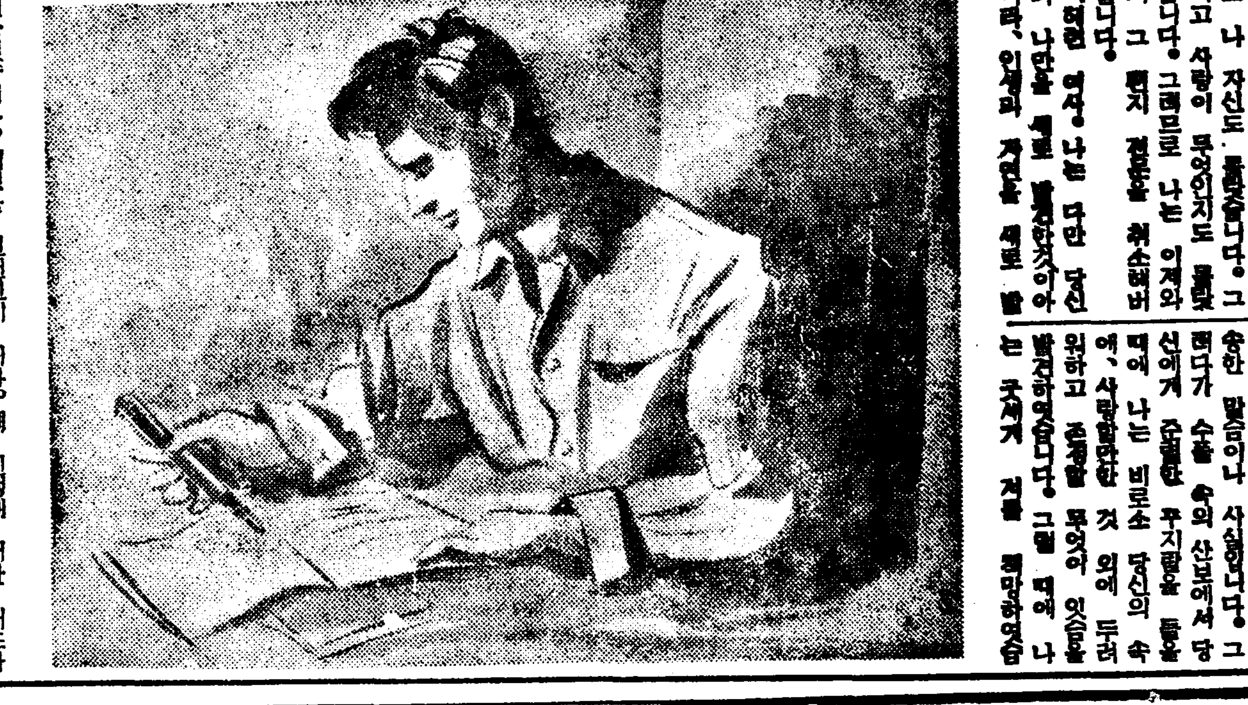
衣類二十三點 元山春光樓唱妓一同

衣類二十八點 元山大光樓紅妓一同

衣類十點 元山大光樓主黃光心

愛慾의彼岸 【94】

李光洙 作　金康錫 畫



주상은 그날 밤에 잠을 일우지못하엿다。오직 혜련에게 대한 생각뿐이엇다。자정이나 넘어서 주상은 일어나서 혜련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엿다──

『나의 가장 존경하는 김혜련 씨。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이런 에 와서야 비로소 당신을 발견하엿습니다。지난 봄 서울서 들인 편지는 취소합니다。그때에는 내가 당신도 몰라보엇고 또 나 자신도 몰랏습니다。그러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랏습니다。그러므로 나는 이제와서 그 편지 전부를 취소해버립니다。

『혜련 여사。나는 다만 당신과 나만을 새로 발견한것이아니라、인생과 자연을 새로 발견하엿습니다。이것을 신전신자라고 하는것일까요。당신은 내 눈에서 한껍질을 벗겨주셧습니다。그래서 내 눈으로 하여금 새 비출 감흠하는 새 힘을 엇게하엿습니다。당신은 내게 압서서는、하나님의 사자이섯습니다。

『혜련 여사。나는 사랑이 어떠케 아름답고 사랑할만 존재인것을 당신을 통하야서 느꼇습니다。이지와 감정과 의지력이 어떠케 조화하면 아름다운 인격이 일우러지는가를 깨달앗고 당신과 가튼 표본이 인류에낫타난것은 제게의 큰 영광이라고 밋습니다。

『혜련 여사。도모지 붓이 내 말을 듯지아니합니다。지금에야 비로소 말과 글이 얼마나 불완전한것과、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미묘하고 신비한가를 깨달앗습니다。

『혜련 여사。내가 당신에게대한 사랑은 인제는 벌서 연애가 아니라、신앙이 되어엇습니다。하나님의 완전하신 작품(그것은 당신이십니다)에대한 수히 갈양입니다。숭배자로 찬미자로 당신의아페 꿀어안즌자입니다。당신은 내게 잇서서는 인생의 전체요、세계의 전체십니다。무엇이라고 더 소중하게、더 찬미해서 할 말슴을 시인도 문사도 아닌 나는 모릅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당신아페 선것은 하나님의 아페선것과 가태서 추호도 속을 긔일수는업습니다。다만 떨러서、가슴이울렁거러서、생각하는바의 십분지일도 표현을 못할뿐이지 티끌만한 거짓도 꾸밈도 과장도업습을 거룩게 맹세하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처음에는 당신을 아름다운 한여성으로 한번 만저볼까 하는생각이엇습니다。한참 동안 단꿈을 빨아먹고는 배타버리리라 하는그러한 심사엿습니다。실상죄송한 말슴이나 사실입니다。그러다가 수풀 속의 산보에서 당신에게 준엄한 꾸지람을 듯을 때에 나는 비로소 당신의 속에、사랑할만한 것 외에 두려워하고 존경할 무엇이 잇슴을 발견하엿습니다。그럼 때에 나는 굿세게 저를 책망하엿습니다。제 인생에 대한 태도가 참되지못하고 정성되지못한것을 아프게 뉘웃고、그리고 나서는 당신을 귀여운 여성으로 사랑하는것이아니라、존경할 벗으로 숭배한다는 생각이 업잇기시작하엿습니다。그때도、그리면서도 내게는 항상 우월감이잇섯습니다。그것은 다만 남성으로의 우월감뿐이아니라 어리석게도 저를 과대평가하고 당신을 과소평가하는데서 나온、그런 건방진 우월감이엇습니다。

『그러나 때는 마침내 왓습니다 이것밧게는우월감이 여지업시 부서질 때가 마침내 오고야말앗습니다。나는 육체적 완력으로 당신보다 우월하겟습니다。낫살로도 그러하겟습니다。책페지나 외국말마디가 더 배운것으로도 우월하겟습니다。사실상 이런것들이 나로하여곰건방지게하는 재산이엇습니다。그러나 그러나、아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나는 마침내 바닷가에 그나는 당신、바닷가에서 해뜨는것을 바라보고 긔도하는당신、모든 긔회의 당신에서、당신의 속에는빗나는 쏘울이 잇음을 발견하엿습니다。이것은 내가 인생에나온지 이십륙년에처음 발견한비칩니다。이비출 볼 때에 나는마치 해벼떼선 눈사람과 가티 녹아버려서 그 부피크던 몸뚱이가 터러운 흙한줌이 되어버림을 깨달앗습니다。

ALMOND PAPAYA

기죽은 여드름 미깨를

벗꺼름 治療코 色白으로

專賣特許 藥用크 파파인 酵素應用

여름美容의 總決算期!

여드름、부흠、살결거친때、벗꺼름色黑、죽은깨 기미等은只今곳손질해야 합니다 藥用아몬파파야를 꼭愛用하십시요 여러가지美容上을加하야 良效를얻… 最新最高의藥效에依하야 決定的大好評을밧고잇습니다。

惡脂肪分解作用

色素의解排作用

여드름부흠을放置하고 不注意하고藥을먹든가하면 살결에터러운구멍을내든가內攻하야기미가되든가 害를하지만藥用아몬파파야를 使用하면惡脂肪이分解되고溶解하야 排泄管으로 때와가티빠저버립니다

◎죽은깨기미벗꺼름色黑은 그構成素細胞가 新陳代謝作用과相副하야 次次浮出排泄되여後에는 美肌가되여버립니다

◎買入은때마-는化粧品店雜貨店藥店各舖 販社代理部에서求하십시요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東京市神田松住町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下谷(83)一六七〇番 振替東京七八四六一番

▲定價一號一圓三十錢 ▲二號壹圓一圓八十錢 ▲送料各一瓶金十錢 書留料二十七錢 其他四十二錢

見本進呈 二錢切手封入申込하시요

나치스公債政策
⑤ 그 背景內容

지금까지 貯蓄銀行의 對政府關係는 制限된 手形割引(勞務手形)에 그치고 아무런 事業手作에 積極的으로 參加치 안엇다 이때에 이르러 새로운 金融統制法에 依하야 貯蓄銀行의 公債政策으로 密接하게 되엇다 이런 事情을 나타내엇다고 보는 事實로서 全國貯蓄銀行、保險會社의 特殊政策을 例擧하고

(第七表) 預金年次增加 (單位=十億馬克)

	一九三一-三二年	三二-三三年	三三-三四年	三四-三五年
貯蓄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替貯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信用組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貯蓄用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替振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貯蓄振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엇는바 公債의 消化力이 얼마나 큰가를 보히는 때문이다 第七表에 依하야 公債消化에 貢獻이 莫大한 것을 보면 貯蓄銀行만이 顯著하다 一九三二年比較 三三五年增加 三十八億三千萬馬克 中 二十七億四千萬馬克을 貯蓄銀行이 占하엇다

信用組合 …

(註) 伯林大銀行 (白林新聞四季報에 依한것)

保險會社에 關하야 詳細히 말하면 保險會社의 投資資本은 그 投資增加로 되엇스며 그 長期投資의 增加를 보면

【第八表】 保險界 長期投資의 年次增加 (單位十億馬克)

	一九三二-三三年	三三-三四年	三四-三五年	三五-三六年
期限投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私保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公保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社會保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伯林景氣四季報에 依함

×

나치스政府가 公債政策을 遂行함에 잇서서 무거지의 難關이 잇다 卽 첫재는 貯蓄銀行과 公債消化力이 漸次減少하여져 가는 것 둘재로는 인플레 傾向의 事業界 資金需要가 擴張하는 것이다 먼저 貯蓄銀行의 公債消化力은 勿論 그 振込增加 額에 依하야 보면 振込超過는 一九三三○年부터 第九表와 가티 一九三五年까지 增加하엇스나 三四年에 十餘億馬克에 達하엿다

【第九表】 貯蓄銀行振込增加 (單位=百萬馬克)

	一九三三年	三四年	三五年
振込超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利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에 對하야는 다음의 點을 注意치 안흘수가 업다 卽 一九三五年의 振込增加에는 基因한 것이 아니라 振出의 減少로 因한 것이다 振込은 一九三四年으로부터 一九三五年에는 돌이혀 七千七百萬馬克(一·四%)이 減하엇스나 振出이 三億四千百萬馬克의 減少를 보힌 까닭에 振込超過 總額은 一億五千萬馬克에 不過하다 記錄케 되엇다 一九三五年第二四半期 以後에 漸次減少에 시작하고 漸次惡化하야 第四四半期에 일으러 事實化하게 될것이다

×

그 振込減少의 原因이 만약 大衆所得의 減少에 基한것이라 하면 重大問題이다 이 事情은 分明치 안키 때문에 「經濟와 統計」는 最近號로 이 振込減少에 對하야 政府의 公債政策이 一部影響을 말하엿는데 이것은

【第十表】 貯蓄銀行出納振込 (單位=百萬馬克)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	第四期
振込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込 一九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出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出 一九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込超過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振込超過 一九三五年 (△不足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할수잇슬것이다。卽 票券公債는 直接으로 公募의 形式을 取치아니하드래도 그것이 貯蓄銀行、保險會社로 一般에 賣出하면 公衆의 資金需要가 擴張되고 따러서 銀行預金이 一般으로 줄지안흘수업슬것이다 그래서 公衆의 公債投資에 依하야 直接影響되는것은 그中 貯蓄銀行의 預金일것이다 振込의 減少가 거의 票券公債發行과 時期를 가티하야 나타낫다는것은 그 影響을 말하는 것이다.

未曾有水害
田畓流失外에 時期不利도添加
稻作穗孕期、田作開花期로
貧農細民 食糧問題緊迫

今年水害의 襲來로 마즘 移作의 穗孕期이엇고 甚히 實로 未曾有의 第一次의 水害가 八月下旬으로 曾有의것임은 數字가 證明하고 잇거니와 特히 農作物關係로 보면 稻作이 出穗期이요 田作物은 大豆、棉、其他가 開花期이엇든때문에 稻作은 勿論、田作等에도 相當한 減收를 免치못할 모양이다 그中에서도 稻作의 浸水地는 全失 或은 半失程度에 미칠 面積이 莫大할 모양인데 兼하야 田作物에까지 影響하게 될 것으로 今番 水害는 單純한 米穀中心의 農村 또는 一般經濟關係뿐만 아니라 一般貧農 乃至 細民의 食糧問題로 보아 緊迫한 事情에 直面케 될것이 豫想되고 잇서 農業朝鮮의 今年 水害는 各方面으로 深刻히 影響할 모양이다

直接田畓의 流失埋沒等을 除하고도 水害의 時期가 極히 不利하야 被害는 豫想以外로 莫大하리라고 推測되고잇서 農務關係者들은 지금부터 크게 놀래고잇다 被害全貌는 來十日까지 關任할各調査班의 報告에 依하야 判明될것이나 現在의 概略한것을보아도 먼저는 水害時期가 從來는 七月下旬에서 八月初이든 것이 今年은 大體로 陰雨多濕하야 一般的으로 作況이 不良하든터에 第一次水害가 八月中旬 다

水組打擊이 甚大
收穫皆無의 水組도잇다
◇……更生策講究必至

이번 水害로因한 水利組合關係의 被害에 對하야 總督府土地改良課의 調査에 依하면 今年의 被害는 從來의 堤防決潰等工作物의 被害보다도 稻作의 被害가 크다는것이다 아직調査가 完了되지는안엇스나 水利組合中에 收穫皆無가 될것은

▲提東(京畿)六三〇町步
▲新灘津(忠南)一三〇町步
▲長根(忠南)四三〇町步
▲初同(慶南)二〇〇町步
▲第二威安(慶南)一九〇町步
▲北面(慶南)二八〇町步
▲東面(慶南)六三〇町步

等으로그中東面은 程度가多少나으나 亦是거이皆無의 狀態라고 볼것인데 以上의것은 以外에 二三割、四、五割의 減收量 볼것이 또한만흘모양이다 이에對하여서는 組合費의 減免을하고 積立金의 繰入 起債 更生組合聯合會의補給金에依하야 更生策을講究케될 모양이다

咸興開催의 穀物大會
各地提案內容

今月十一、二十日의 兩日間咸興에서 열릴 第三回穀物大會에 提出될 議案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㊀議題提出

一、低利資金은 穀物業者에 均霑케하도록 當局에 要望할件

產業組合行政을 農林局에移管?
事業調整問題로써

產組와 金組 農會의 三者의 事業調整問題는 좀기어려운 朝鮮農政上의 懸案이 되어잇는데今次 農林局에 農村振興課設置에 伴하야 產組와 農會와의 事業關係、產組行政의 農林局移管說이 擡頭되어 자못 各關係方面으로부터 注目을끌고잇다

이것은 農村振興을 爲하야 現在 農會에서 行하는 共同販賣購入事業을 農村振興關係의 所管으로하자는 有力意見이 잇서 現在 京畿道와 如함은 이一部에 손을 대이게 되엇는데 이것의 促進策으로 產業組合을 農村振興課에 移管하자는論이잇고 首腦部에서研究中인 모양이다

產業局으로서도 產組發展上 事業調整에는 全然 異議업는듯하야 問題는 農會의 態度 如何에 달렷는데 業者、權을 비롯하야 各種에 耳하야 共販共購를 行하는 現農會 機構는 變態的이라보고 잇스므로現產組를 農會와 合體하야 指導機關으로서 農會、事業機關으로서 產組로난호는것이 合理的이라하야 이問題는 相當히 實現性이 잇는듯하다

木浦 現拂問題解決
每年七月交替現着拂
今年은丸木主張대로

【木浦】 運賃=納料를 거듭하든 阪神荷主對丸木協會間의 朝鮮米運賃現着拂問題는 滿阪中의 丸木代表와 阪神荷主側間에 數次會見하엿스나 一時危機에 빠저든바 지난三日 最後會見으로 雙方이 互讓折衝한結果 同問題는 圓滿解決되엿다는 電報가 지난四日 滿阪中인 丸木協會代表金文玉氏로부터 木浦當業者側에 到着하엿다 그電報文의內容은 다음과 갓다고

「三日 阪神兩組合幹部와 會見한結果 雙方의面目을 爲하야 今年十二月까지 現拂、來年一月부터 七月까지 着拂의折衝案으로 圓滿解決하얏다」

重要商品界事情

人絹實需向背
市勢의分岐點

人絹界는 十先의 操短이 揭置키로 決定되고 規約改訂도 解決되어 不安材料一掃인데 淸算은 反對로 弱氣에 傾하얏고 仕手도 一般으로 氣迷深甚한 바 淸算이 伸力이乏한 原因은

1、操短揭置하도 年內生產은增產豫定인것
2、特約店이 十先의 高價를 觸코잇고 實需側의 買氣가 至極緩慢인것
3、特殊絲가 織物入荷가적어前途增產豫想으로 軟化되고 메스絲와의 鞘도 近한것은五十錢으로 縮少되것 地方의 機屋도 不知間에

相히準備하야 急激히 買付할 氣配가업는것

5、大連의沈默으로 原絲輸出이 一息狀態이오 織物輸出도朝鮮方面에 多少買氣가 잇슬뿐이며 주의二十八日前散物이完全히 一巡되어 最近反落한것

大體以上과가튼 事情에依한것인데 日印會商도 一部서는 弱氣的으로 보고잇는만큼 內外實需가 展開치안흐면 市勢도目前調 難免이라는 人氣가 强하여 實需向背如何가 市勢의分岐點이되어잇다。

大市勢에直面

이번市勢에잇서 認識을要할點은 新鐘은 地場買乘으로 好앗고 新東은 傍觀人氣로 活氣가乏하고 電力株는 遞相의 民營反對로不振이며日魯는漁業交涉不進嫌氣로諸株逆行低其他株穩健이다

北濱情報 【大阪電話商通】

人絹株는 聯合會의 內訌解消로 悲觀人氣의 反動이오 新規買와 小口의 踏物續出로 躍動하얏다 鐘紡은 逆日步狙로 前市側買進하야 雙方仕手가 積極態度를 回避코잇섯다

雙方積極回避

新甫의 活躍도 三百天下의 格이되고 百二十七圓臺가 目前天으로보이나 시원스럽게 押目도업시 週初인 今朝도 難上難下의 揉合而已이엇는데 高價로는買方이 警戒하고 低價는賣方이 躊躇하야 雙方仕手가消極態度를 回避코잇섯다

後場低落

後場은 賣人氣로 東新이 百二十五圓十錢에까지 지며러짓다가 五圓六十錢大引、日產八十一圓三十錢鐘新百六十五圓五十錢에 低調이고 朝取新甫는不變、日魯六十九圓十錢이엇다

經濟界消息

▲命井邑支店長(南原支店長)三上吉藏 ▲命南原支店長(鐵源支店長)望月倫仁郞 ▲命全州支店長(元山支店長)村田俊介 ▲命浦項支店長(釜山支店長代理)河野益一 ▲命釜山支店長代理(大邱支店長代理)寺田敬一 ▲命大邱支店長代理(雄基支店長代理)古賀壽 ▲命元山支店長代理(會寧支店長代理)岩崎滿江 ▲命會寧支店長代理(大邱支店)蓮田祐文 ▲命雄基支店長代理(釜山支店釜山鎭派出所)山田彌七 ▲依願解職(浦項支店長)吉川善太郞 ▲依願解職(井邑支店長)都甲岩太郞

○鮮滿拓殖東拓代表監事 渡邊氏 決定=鮮滿拓殖의 東拓代表常任監事는 渡邊得四郞氏로決定하엿다고

○朝石重役會=朝鮮石油會社에서는 七日 午前十一時부터 入京中의 橋本社長出席아래 常任重役會를열고 開業後의 販賣方針其他에對한 意見을交換하엿다고

○京城商議水害義捐一千圓支出=京城商議에서는七日 午後三時부터 緊急議員總會를열고 水害地義捐金支出에關한 協議를할터인데 京城商議로一千圓을 支出할터이라고

殖銀支店長異動

九月五日附로 殖銀支店長과代理級의 異動이잇섯다고 (以下括弧內는現在勤)

▲穀聯幹事會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七日 午前十時半부터 總督府 石塚 成田 瀨戶各關係官臨席 齋藤幹事長議長아래 幹事會를 열고 다음과가튼議案에對하야協議하엿다고한다

一、幹事長의渡阪經過報告件
二、朝鮮白米袋入問題對策을協議할件
三、改組에關한件

東拓 總裁辭任說
全然無根의말
佐方東拓理事談

株主總會에 出席키爲하야 渡東이다가 六日歸任한 佐方東拓理事는 如左히 말한다

要望事件
一、朝鮮에商業組合과 工業組合令施行促進을 當局에要望할件
一、穀物業者의商權擁護에關한件
▲丸木協會提出
一、玄米檢査의容量制限을 撤廢하고重量制實施를要望할件
一、道內移送白米의檢査撤廢를要望할件
一、穀檢査의統一을要望할件
▲角ヶ協社提出
一、營業稅를 營業收益稅로 改正하기를 當局에 要望할件
一、朝鮮에商業組合令施行을 要望할事
一、穀物廻着點檢에 際하야 第一次檢査荷重을거듭要望하는件
一、電信取扱時間을 日本內地同樣으로 改訂을要望할件
▲協議案=丸元會提出
一、荷爲替取組에 對하야 阪神元山、西湖間을 十五日間으로 되것을 本船到着後 四日間으로 延長、振取組하도록 改定하기를바라는點

一、電信料引下並取扱時間日本內地同樣發表方再度要望의件
一、商工業組合法制定促進方要望의件
▲丸元協會提出
一、不合格白米를 다시 區分表示를當局에要望할件
一、輸入栗斤量統一及品質檢査制度施行을 要望할件
▲丸仁協會提出
一、玄米重量制即行要望의件
一、口袋制限要望의件
一、正租生產檢査促進要望의件
一、白米袋入檢査手數料를 收入과 同一히 低下하고 正租檢査手數料一又三錢을 二錢으로 低下할事를再要望할件
一、電信料金及電信取扱時間을日本內地同樣으로 改訂함을 再

一、袋入白米手料는 收入과 同率로 引下할事를 當局에 要望할件
一、米倉의 倉庫料를 引下하도록 要望할件
一、玄米檢査를 正米重量制로 改正함을 要望할件
一、輸移出穀物의 廻着點檢에 際하야 第一次檢査를 充分尊重할事를 當局에 要望할件
一、穀物檢査出張所는 郡內一個所로하고 必要한곳에 駐在所를 設置하도록 當局에 要望할件
一、正租의 檢査는 全朝鮮統一으로 施行하고 빨리 生產檢査에改正을 當局에 要望할件
一、檢査期間 經過穀物의 再檢

商況 【七日】

新動機待

下押

今次의風水害의 被害狀況은 目下支社員이 現地에出張하야 調査中으로 詳細는不明이나 北西朝鮮의旱害와 今次中部以南의風水害로稻作은 減收될것으로 보이는바 今年의目標五十萬石의 一割減卽 昨年의實收四十六萬石보다 別로 減收는안될것이다 東拓今後의增配問題는 栗緩如何에 도依하겟스나 여러가지關係로世間에서 보는것가티 그리簡單히 增配는안될터이다

東拓外債의買入償還은 減債基金分만이고 其他는 極히少額을 消極的으로 行하고잇다

總裁는 十八、九日頃 入京하야 二、三日滯京할터이데 辭任問題는 全然떠마이다

高利社債의借換은 終了하엿스로 今後는 時期를보아 新株를 充當키爲하야 低利債를發行하려이다

○

京城電氣會社는 머리를쓴네 電氣料金은 複雜하고 번거워 批難이 적지안흔데 最近에 一齊値下를 斷行하리라고 都心制度를 取한 京電 電車 面的 五錢均一制를 採用하리라고 龍山方面住民들이 大京城 全 휘ㄱ다

○

京電會社는 머리를쓴네 全朝鮮의 營業所中 京電같이 營業成績이 좋은 곳은 업스니 電車探察이 果然 잇슬는지?

○

監督官廳의 徹底 督勵이 若何

前場底堅

休日을지난今前場은 積極買氣不起하고 揉合裡에 底堅이엇스니 前週末에 比하야 東新三十錢低인 百二十六圓五十錢 日產五十錢高인 八十一圓七十錢 鐘新八十錢高인 百六十六圓丁 朝取七十六圓丁 日產新三十錢高인 二十八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三十二圓二十錢 帝人百二十圓이엇다

落潮洶洶
米 期 崩壞

前場瓦落

再昨後場阪地卅一圓六十錢止와 共히 廿九圓五十九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卅一圓廿一錢인 卅九丁의 瓦落을 掛하고 廿九圓卅五錢인 二十四丁低로 場을 始한後 阪地二節 三十一錢으로 九節 〇九錢까지 下押하엿다가 十一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二節三十六錢으로 二十六錢까지 低落하엿다가 三十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下澁

後場은 二十九圓三十一錢에 同價始場後 三節

寄付

株……今前場은日產、鐘新이 다시擡頭되엇스나 東新은揉合 하고 電力株는 遞相의 民營反對로不振이며 ▲도踏步하니가 弱氣論이 만허가는모양이나 寧히押目買場의것 ▲取引所制度調查委員會의答申案이可決되면 그것이動機로 極度悲觀의大反動高가 나올것을可期▲動機待는 揉合이라고 엇수이여일것이아닐뜻

米……一休今朝에 至하야 一舉에三十九丁瓦落으로 落調十餘丁의反落을示하엿다 ▲明日의 白露를 無事히지나고도 二百二十日이無難經過하는때는 日本內地는 農作을可期할수도잇스며따라서 市勢도又復一落을是히豫期할수잇다고 軟派는樂觀 ▲그런데 朝鮮은大凶作이라하여도過言이아니요 阪仁의鞘가又一層縮少될것을可期▲凶作의米暴騰價에 팔게되는朝鮮農家의今後가또하問題인걸

帝人百二十圓

今前場은東株및朝取의 帝國人絹株가 百二十圓丁에 乘하고도 寶買取引되엇는데 帝人株는 昨年末의 五十圓台에比하면 十圓 正히七十圓의 平價를 막아 內紛이 解決되고 今後에 好調가期待되며 同社의 事業의 成行을 好意하는 同社人絹과 第二帝人의 配當 인 時期를 보면 結局五百萬圓의 利益이 豫想되어 再減配說은 霧散하고 一割五分의 安定性이 잇다한다

實物前場取引

△도례키츠 業三〇○△日本電工五〇 △라사工業二〇○△人造羊毛一〇一 ○△北樺太石油新二〇○△東京人 絹新二〇○△人造肥料新二〇○△에라 파이新三○ (取引高五○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

赤字公債條件待로 實買共히 氣乘薄이오 內價는 釘付대로 變化가업고 外貨債는 割低續되어 人氣弱하고 佛貨不變이나마 米貨價六分半八十錢高 五分半五十五錢高를 示하엿다

甲五分利 一〇一〇五
佛貨四分 一九八一〇

當地依然下澁

阪仁益益縮鞘

一休今朝의 阪地市勢는 白露、二百十日의 無難經過를것을 豫期하는 實物에 賣出하야 阪地의 五十餘丁의 奕落을 비롯하야 東京其他 各地가 一齊히 低落하엿스며 딸아서 朝鮮의 凶作을 悲觀하는 當地市勢도 울며겨자먹는格으로 畢竟 一段低落을 示함에至하엿다 그러나 阪地 五十丁低落에 對하야 當地는 三十丁程度의 低落으로 比較的下澁狀態를 보힘으로 阪仁의鞘는 不知中 百八十丁으로縮少되고 말엇다 實로 日本內地米界의 事情과 朝鮮米界의 情勢를 對比하여보면 아즉도 더縮鞘할餘地가 잇을것같다 今朝의 當地의 仕手觀으로보면 瓦落을 告하고當地亦八十餘丁의 低落을示하엿슴을 機로하야 利喰을 急히하는 빼아니하다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圓)

		前日比
仁川期米 先限	二九·三○	三五低
大阪期米 先限	三一·三○	不變
東京期米	三一·三六	[illegible]
正米(仁川)一等	二九·[illegible]	[illegible]

◆市中金利

日步	
[illegible]	[illegible]

◆株

		前日比
朝取新	七六·五	[illegible]
東新	一二六·五	不變
日產	八一·七	三○低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木綿	[illegible]	[illegible]

諸厄日無難?

各地依然反落

阪地期米는 白露와 二百十日을 無事經過하야 秋作의 豐作을 豫想하고 各地 期米가 一齊히 反落하엿다 今朝의 阪地는 好天이 계속되는 데서 賣物이 續出하야 二十日 三十錢內外의 反落을 보히고 仁川도 一齊히 下落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奔落

期米의 慘落을 移하야 買氣極端으로 萎縮되고 大唱은 三十錢奔落을 演하얏다 三口實物은 依然不現이엇다 ◎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引弛

天候恢復으로 人氣不良하고 幾分弱含인 據先期米의 一轉反落步調를 移하야 買氣가업고 氣配二十錢引弛이엇다 ◎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一三、〇〇

釜山軟化

期米는 暴落을 演하나 依然實物商의 市場은 正되지안코 氣配意外下落하야 十錢少幾이다 今朝는 新米四叺의 出廻가잇섯스나 品質粗惡하야 賣買不成立이다 ◎三等三一、三〇 一等白米 三一、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三、七六

大邱反落

休日後이나 正米界情에 大變化가업고 實物商의 商狀이나마 期米奔落을 移하야 氣配二十錢反落을 告하얏다 ◎三等三〇、九〇 四等三〇、六〇 一等白米一三、七〇

仁川軟調

日本內地寶行不振으로 氣迷人氣가 濃厚한데다가 期米의 奔落을 더하야 十五錢軟化이엇다 ◎三等三一、四五 一等白米一三、〇〇

京城續落

期米奔落과 各地正米의 續落으로 氣配十五錢續落이엇다 ◎三等三一、四五 四等三一、一五 一等白米一三、〇〇

各地正米

堂島館場情報

白露厄日無難經過의 影響과 仁川期米의 惡化로 買方의 投物이 續出하야 形勢一變하고 新低價로 實物化되고 買方 朝鮮側 實方 東京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 七日

◆朝取短期◆

	前引	高値	安値	後場引
朝取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紙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 ◆大阪短期◆ / ◆東京現株◆ / ◆朝取短期實物◆

	前引	後引	高値	安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期 ㊍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 仁川 康益亨商店 ㊑ 京城 光 金益證券 株式會社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②3939 振替京城234

朝取期米 七日

◆朝取期米賣買高◆
合計 [illegible]
當中 [illegible] 出來高
本期總計 一〇·二三·五〇〇石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節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日本米 上	[illegible]	[illegible]
朝鮮米 上	[illegible]	[illegible]
臺灣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圓)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銀坊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龜尾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興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馬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陸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穀良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七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시카고期麥◆

	前寄	前引	後寄	後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融 七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 ◆東京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絹布◆ ◆綿絲布價◆ ◆綿絲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